

인터넷뱅크 돌풍

금융지형 바꾼다

(카카오뱅크 1주일 가입자)

‘150만 돌파’ 흥행대박

시중은행 ‘긴장 백배’

카뱅 홀릭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은 영업 1주일 만인 이달 3일 오전 7시 기준 신규 계좌 건수가 151만 좌를 돌파했다.

실질이용률을 가늠할 수 있는 체크카드 신청 건수는 103만5000장을 기록했다. 여신은 대출 실행금액 기준으로 4970억 원, 수신은 66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영업을 시작하면서 '7분 신규 계좌 개설, 60초 대출'을 슬로건으로 신용대출(마이뉴스통장) 한도 1억5000만 원, 해외 송금수수료 기준 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내걸었다.

카카오뱅크는 4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토록을 기반으로 초반부터 승승장구했다. 가입자 수와 여신·수신액 증가 속도는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를 넘어섰

만에 한도 상향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모바일 서비스인 'KB스타뱅킹'을 통해 소득 증빙 없이 거래실적만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놔다. 우대 금리 적용 시 연 2.29%(최저금리 기준)의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연말까지 일정 금액(500달러) 이하의 해외 송금 수수료로 카카오뱅크보다 아예 적게 받기로 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경쟁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의 금리를 내렸다. 보험업계는 다음 달 케이뱅크의 방카슈랑스 시장 진출을 주목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각종 카드 이용 혜택을 늘리며 충성 고객 이탈 막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금융 시장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카카오뱅크는 오픈 직후부터 대

케이뱅크, 출범 4개월만에 여신 6000억·수신 7000억 돌파

“고객 다 뺏길라” 변화 더딘 시중銀, 서비스 개선 ‘발등에 불’

인터넷전문은행 강점과 약점

구분	강점	약점
 케이뱅크	- 편의성 - 365일 24시간 운영	- 자본력 - 보안사고 취약성
 카카오뱅크	- 대출금리(↓), 수신금리(↑) - 저렴한 해외송금 수수료	- 시스템 불안 - 단순한 상품 라인업

다.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가 더 빠르게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뱅크보다 앞선 4월 3일 출범한 케이뱅크도 가입자 수와 여신·수신액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달 2일 기준 가입자 수 44만 명, 여신 6300억 원, 수신 71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출범 100일이었던 지난달 11일보다 가입자 수 4만 명, 여신·수신액은 각각 200억 원, 60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초반 돌풍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은행들은 영업점을 축소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모바일뱅킹을 전면 개편하고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상향하거나 우대 금리를 더 낮여주는 등 서비스 향상으로 맞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6월 말 우량 기업 직원과 공무원·군인·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 최저 2.46% 금리에 최대 1억 원을 빌려주는 비대면 전용 '신한S드림 신용대출'을 출시한 지 한 달여

출 서비스와 고객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혼란이 계속되자 영업을 개시한 지 1주일도 안 돼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못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일에는 사전 공지도 없이 마이뉴스통장의 한도를 줄였다.

케이뱅크의 경우 가장 인기 있었던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를 지난달 초 돌연 중단했다.

두 은행 모두 “갑자기 대출 신청이 몰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금융권에는 신뢰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일련의 현상이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자칫 대규모 고액 이탈로 이어지면 자산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산 분리 규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주요 주주가 정보기술(IT) 기업인 만큼 향후 안정적 대출상품 라인업 확대를 위해 산업자본의 자본 보유 한도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효진 기자 js62@

LG화학, 이케아 손잡고 ‘태양광’ 영토 확장

태양광발전 패널·ESS 솔루션 英 솔라센추리에 공급하면
가정용 발전 완제품 만들어 이케아가 글로벌 시장에 판매

LG화학이 글로벌 가구 공룡 이케아를 통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이케아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 패널에 이어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면서 LG화학의 가정용 ESS 전지를 채택한 것이다.

LG화학이 가정용 ESS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케아는 영국 태양광 발전소 시공 기업 솔라센추리와 함께 영국 시장을 대상으로 가정

용 태양광 발전 패널과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제품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 생산만 하던 기존 솔루션과는 달리 생산한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태양열 사용 효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케아가 선보일 제품에는 LG화학의 리튬이온배터리 기반 3.3kWh 모델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이 이케아에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납품하는 구조는 아니며, LG화학이 솔라센추리에 배터리를 납품하면 솔라센추리가 완제품을 만들고 이케아가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케아는 이 제품을 영국에 우선 출시한 뒤 미국 등 전 세계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요금이 전 세계 평균 수준이고, 정부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은 영국 시장에서 시범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뒤 다른 국가로 판매 범위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이케아의 가정용 ESS 제품의 판매 국가가 확대되면 LG화학은 빠르게 성장하는 가정용 ESS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 네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주택용 ESS 시장 규모는 올해 7300억 원에서 2024년 12조 원으로 연평균 44%의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 가정용 ESS 시장은 연 평균 8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유럽과 아시아에 이어 지난해 북미 시장에 진출하며 가정용 ESS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ESS 생산량은 2015년부터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ESS 매출액 역시 지난해 전년 대비 60% 성장한 데 이어 올해도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기술력 역시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전시회 ‘인터솔라(Intersolar)’에서 LG화학의 주택용 ESS 제품인 ‘뉴 RESU’가 본상을 받은 바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케아의 제품에 LG화학의 가정용 ESS 배터리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직접적 납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굴 속으로, 물 속으로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사흘째 폭염이 계속된 3일 경기 광명동굴을 찾은 시민들이 레이저 쇼를 보며 이색 피서를 즐기고 있다(왼쪽). 경기 양주시 송추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은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더위가 이어지고, 임추인 7일엔 태풍 '로루'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고이판·이동근 기자 photoeran@

공정위, 재벌 ‘상시 감시’ 레이더망 강화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OPNI’ 업그레이드… 지배구조·내부거래 등 파악 용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사익 추구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망 구축에 착수했다. 기존 기업집단 포털시스템을 고도화해 재벌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인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작업은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오픈니·OPNI(groupopni.ftc.go.kr)'로

도 불린다. OPNI는 대기업집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관련 정보의 축적과 관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현재 OPNI 시스템에 담긴 정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재무보증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등 각 기업별 소속 회사, 주주, 출자, 재무보증, 지주회사 현황 등이 있다.

문제는 OPNI가 시장감시 기반 확충 방안에 중요한 시스템이나 2007년 첫 구축 이후 2008년 한 차례 개선작업이 이뤄진 이후로 시스템이다. 관련 정보가 해마다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시스템소프트

웨어·하드웨어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지녔다.

또 내부 관리시스템과 외부 공개시스템이 나뉘어 있어 사용 빈도가 낮은 데다, 대기업집단의 자율 시장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다소 복잡한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내부거래 현황 등의 분석에 주시 소유 현황 및 지분도 분석·공개를 적극 연계해 활용하는 만큼, 내·외부 견제시스템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

트럼프 ‘슈퍼301조’ 꺼내나

오늘 강력한 ‘對中 무역조치’ 발표… 국제사회 ‘불통 뿔라’ 불안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그 불통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관련기사 2편

미국 경제전문 방송 CNB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무역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보도했다. CNBC는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

조 카드를 한 번도 꺼내 든 적이 없다. 그럼에도 발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슈퍼301조가 발동되면 양국의 무역은 물론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이사는 “슈퍼301조는 강력한 도구이며 잠재적 피해는 엄청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12개월 후 이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2차 피해는 물론, 국제사회를 성나게 하는 3차 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슈퍼301조 발동으로 세계 무역 격변 속에서도 사상 최고지 행

진을 이어가는 다우지수와 S&P500지수 등 미국 증시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2월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중단될 경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도 타격받을 것은 마땅하다. 올해 2분기 S&P500지수 구성 기업의 72%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양국의 무역 마찰이 심화하면 기업의 실적과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달러화 가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 우려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인덱스는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이슈&인물 원희룡 제주지사



▶15

비즈니스엔터

데뷔 10주년 '소시'

▶19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위크엔드

日 오키나와 여행

▶17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中 압박 속도내라” 美 민주마저 부채질

G2發 ‘무역전쟁’ 일촉즉발

지난 대선서 뺀긴 유권자 찾으려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보수모드’
“검토 건너 뛰고 직접 조치해라”
슈머 민주 원내대표 이례적 성명
트럼프 대중무역 압박 힘 실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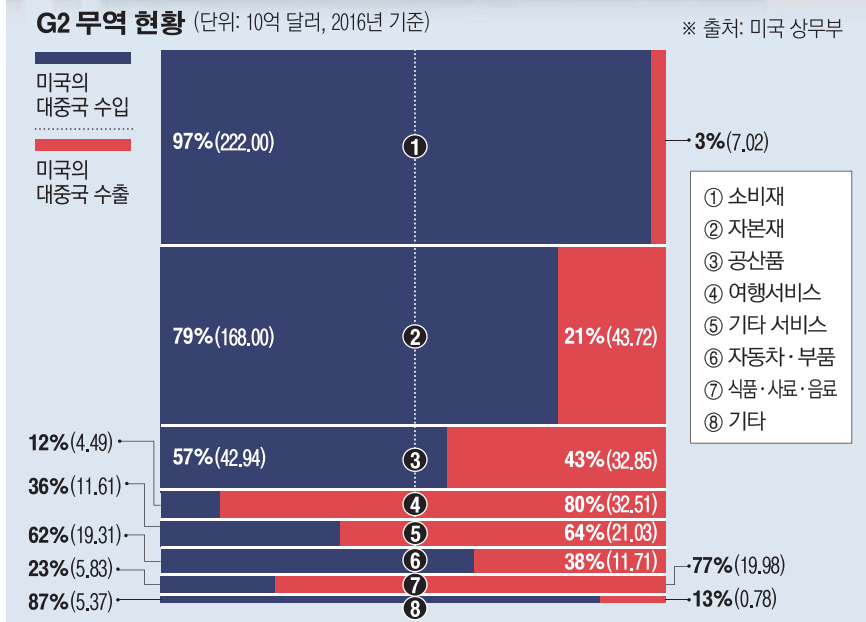
G2 통상마찰엔 주변국도 불똥
日·유럽 등으로 확산 우려 커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중국 제재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 마찰 우려를 부추기는 것은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2일(현지시간) 외국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미국 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담은 새 무역정책들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흡사한 무역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내용은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일자리 회복이나 해외에서 미국으로 일자리를 되돌리는 것에 대한 세제 우대 등이다. 이에 대해 뉴욕 타임스(NYT)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빼앗긴 유권자들을 되찾아오겠다는 의도가



담긴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사실상 대중 무역 압박에 힘을 실어줬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검토를 건너뛰고 직접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무역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대통령 직속기구

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국에 ‘슈퍼301조’라 불리는 무역통상법 301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슈퍼301조는 특정 국가를 불공정 무역 관행국으로 지정하고 나서 1년간 협상에서도 성과가 없으면 관세 등으로 미국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로 이를 적용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줄곧 대중 무역 압박을 써왔다.

4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열린 미·중 첫 정상회담이 화기에예하게 끝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비롯한 대중 압박 카드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중국이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노선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까지 대중 압박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슈퍼301조 카드를 곧바로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는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슈퍼 301조’ 일부를 발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중 강경 노선을 취해 슈퍼301조를 발동하는 등 주요 2개국(G2) 통상 마찰이 심화할 경우 주변국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에 대한 관세도 덩달아 인상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트럼프가 이번에 슈퍼301조를 발동한다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 반발을 살 것으로 전망된다. WTO는 일방적 무역 제재를 금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슈퍼301조가 미국이 자체적으로 불공정 무역 여부를 판단해 내리는 일방적 제재로 보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기기구입-요금제 갈린다니 통신시장 ‘잇속’도 갈렸다

‘단말기 자급제’ 법안 내달 발의 이해관계 상충된 업계 찬반 팽팽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내달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나 제조사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마음에 드는 이동통신사를 선택하면 된다. 통신사가 휴대전화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던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통구조를 뿌리째 바꾸는 법이다. 이로 인해 제조사, 이동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3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 할인을 인상(20%→25%)이 이동사의 반발에 부딪치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 법안을 추진한 것이다.

단말기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와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와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선택해 가입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로 분리된다. 통신사가 휴대전화와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며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쏠리는 관행

을 개선해 요금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다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 한해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더불어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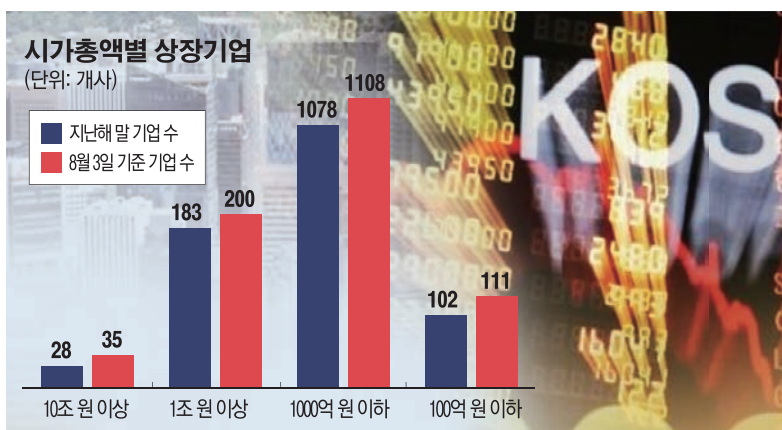
하지만 관련 제도에 대한 이동사, 대리점, 제조사의 의견이 각각 달라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은 중소사업자 위주의 이동통신 대리점들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을 상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단말기 자급제에 부정적이던 이동 3사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해 열린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SK텔레콤 가입자를 뺏아야 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도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데이터 뉴스 Data News

증시 양극화… 시총 1조 넘는 ‘공룡주’ 17개 늘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원(이하 3일 기준)을 넘긴 상장기업이 17곳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 기업은 30곳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가총액 1조 원을 넘긴 기업은 총 200개사로 지난해 말 183개사에 비해 17곳 늘었다. 이중 10조 원이 넘는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35개 기업이다. 지난해 10조 원 이상 기업은 28곳이었다.

지난해 상장일 기준 시가총액이 9조5000억 원 규모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

액 18조4931억 원으로 2배 급증했다. 또 하나 금융지주(15조666억 원), 우리은행(12조8102억 원), 삼성SDI(12조682억 원) 등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코스닥 상장 최대어로 꼽힌 넷마블게임즈(11조6040억 원)도 10조 원 이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 기업은 올해 1108개로 지난해 말 1078개 대비 30개 증가했다. 시가총액 100억 원 이하인 종목도 111개로 같은 기간 9곳이 늘었다. 보현양조(990억 원), 영보화학(986억 원), 동양고속(985억 원) 등은 시가총액 1000억 원을 하회했다. 최두선 기자 sun@



신용의 상징-비틀표
유한양행

활성비타민, 흡수력부터 따지세요

더 강력해진 **베콤씨 액티브**가 새로 나왔습니다
벤토티아민 성분으로 8배 더 높은 흡수율! (타이민다실피드 대비)

육체피로 / 신경통 / 근육통 / 관절통 / 눈의 피로

8배 높은 흡수율로 더욱 강력해진
베콤씨 액티브정

일약 크기가 1/2로 작아졌어요

광고심의필 : 2017-1392-3005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동산대책 다음날 구조조정 명단... 주가까지 '와르르'

건설업체 '3중 악재'에 패닉 상태

건설사들이 8·2 부동산대책으로 패닉에 빠졌다. 최근 주택부문이 실적을 이끌어온 만큼,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1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다는 부동산대책을 2일 내놓으면서 2분기까지 호실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구가했던 건설사들이 초상성 분위기로 변했다. 이번 8·2 부동산대책은 거래(투기)과열지구 규제, 세공(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 및 가점제 확대) 등을 총망라한 초강도 규제로 부동산 시장외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적상승 이끌던 주택시장·오피스텔 규제 강화로 투자심리 위축
금감원, 건설업 8곳 구조조정 예고… 하도급 업체 연쇄도산 우려
동부건설 하루새 14.4% 급락… 건설株 40개 종목 중 33개 하락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과 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됐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내에 위치한 부동산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8·2대책’ 불뚝맞은 ‘서울 도시재생’

文정부 5년간 50조 투자 국책사업
‘강남 4구’ 부동산 투기 열풍 연관
올해 사업 대상지서 서울 전역 제외
고용 촉진·경제성장동력 약화 우려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 지역에서 서울 전역을 배제키로 하면서 이 사업의 효율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서 투
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당초 문재인 정
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을 재생하는 데 재원을 투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연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로 최대 도시인 서울이 사업 대상 지역에서 배제되면서, 이 사업이 고용 촉진과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뉴딜' 사업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지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올해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서울에선 도시계획 뉴딜사업에 전혀 별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강남 4구에 국한된 투기 열풍을 서울시 전체와 연결지어 정책을 내놓은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따라서 부동산 투기와 연관해 서울 전역에서 재생사업 우선권을 박탈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이어 “도시재생 사업은 애

당초 쇠퇴한 지역의 활력을 찾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이 없다"며 "서울 일부지역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전역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일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대상에서 배제해 뉴딜 사업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대표는 “도시 재생이 뉴딜 사업으로 가능하려면 인구 100만~200만 명 정도의 도시에서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며 “서울과 과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신규 사업지 110곳을 선정해야 하는데, 서울을 제외하고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서울을 도시재생 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도시재생 뉴딜과 집값 폭등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원·성북·영등포구 등 서울 도심의 일부 낙후지역 자치구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재 정부가 도심재생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낙후지역 개발을 기뻐했으나, 취소돼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국토개발 계획과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같아 쓸쓸하다”고 말했다.

사업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정부 정책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방침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기획단이 이번 8·2 대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방침상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구도심 활성화와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경중·이지혜 기자 cogito@

◇사업추진 올스톱, 건설사 '명연자실' = 최근 몇 년 사이 주택시장으로 실적상승을 이끌어 온 건설사들로서는 고민이 깊어졌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이에 대한 건설사들의 수주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를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경쟁 구도를 보이던 재건축 단지 유치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입주물량 증가와 함께 정부의 연이는 규제책으로 회사 내부에서도 재건축 물량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남은 물량에 대한 사업일정은 물론, 해외사업 비중을 늘리는 것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업계획을 재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 규제가 새롭게 도입된 것 역시 건설사들로서는 악재 중 하나이다. 한 증권건설사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최근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새로운 투자처로 인기가 높았던 만큼"이라며 "하지만 이번 규제로 투자지급의 급격한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들은 만연자산을 실패"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이 올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중소형 건설사로서는 먹거리를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 도시재생 뉴딜사

업은 소규모 공사가 많아 중소형 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았다.

◇구조조정 될까?... 새로운 걱정거리 생긴 건설업체 = 부동산대책이 나온 하루 뒤인 3일 채권은행들이 올해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업체를 발표했다.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구조조정 대상 25곳 가운데, 32%(8곳)가 건설업체로 밝혀졌다. 지난해 18%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다.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는 대부분 중소 건설사로, 일부업체에선 새 가솔과 저울 인력감입 캠페인이 불 것이라 는 예고가 벌써 나오고 있다.

8·2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로 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는 구조조정의 소요돌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에 C·D등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이른 시 일 내에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 등의 구조 조정에 돌입할 경우 하도급 업체 등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겹착재에 주저앉은 건설 주가 = 이런 약재들이 한꺼번에 다치면서 지난 3월 국내 증시에서 건설주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건설주 40개 종목 가운데 33개가 하락했고, 낙폭도 컸다. 그나마 오른 종목도 우선주가 대부분이었다.

3일 종가 기준 가장 많이 내린 종목은 동부

건설로 14.4% 급락했다. 한신공영(-11.6%), 현대건설(-6.7%), 대우건설(-6.1%), GS건설(-6%), 태영건설(-5.5%), 금호신업(-5.3%) 등 주요 건설주가 일제히 빠졌다. 건설업종 평균 지수는 하루에만 4.69% 하락했다.

라린전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내놓는 것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의 감소 등 재고주택 시장의 과열 흐름은 당분간 완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입주물량 증가와 국내의 금리인상 등 주택 조정 요인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투자자를 찾지 못한 부동산 흐름도 주목해야 하는 등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가 흐름을 보면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온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존재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판단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대형건설사의 경우 수주잔고를 통한 실적 성장과 하반기 해외에서의 추가 수주가 전망되고 있어 오히려 현재가 저점 부근이라 판단되고,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사업장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미래를 함께 하는 신한금융

**신한금융투자
엠폴리오**

내 손안의 **똑똑로봇** 자산관리

투자성향에 맞춘 포트폴리오 제안은 물론,
수익률 및 사후관리까지!

M Folio

'신한 i 알파' APP에 접속하세요!
엠폴리오 서비스는 신한 i 알파 어플리케이션 내
[자산관리 메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로보 알고리즘을 이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면
로보어드바이저의 'R-Plan'

신한금융투자 전문가들의 자산관리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S-Plan'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상품 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한 (간접)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법적계약이 없는 한 신한금융투자그룹 내 계열사는 상호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증권(주)은 모두 금융기관이며, 신한카드사는 무보증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나 참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1528호(2017.4.8), 신한금융투자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7-7991호

프로들의 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

“脫원전 적기” 공론화쫓에 주는 신호?

산업부 “원전 밀집도 세계 최고” 여론전에 “신고리 공론화, 중립성 훼손 우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이 ‘탈(脫)원전’의 적기라며 홍보에 나서 위원회에 ‘원전 중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되는 동안 정부가 탈원전 정책 여론전에 나설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해도 원전이 없어지는 시기는 2079년으로 완전한 탈원전에 이르려면 앞으로 60여년이 더 지나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지금이 원전을 줄여나가기 시작할 적당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탈원전을 하지 않고 기존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대로 하면 2030년 원전은 35기로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100만㎾당 원전 수가 세계 1위로 일본의 3배, 미국의 3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의 사고위험 등 안전문제와 환경 문제, 폐로·사용후핵연료 처리뿐만 아니라 송전탑 설치 등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포함해 발전

단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면서 “그 뒤에는 8차 수급계획이 완성돼야 정확히 말할 수 있지만, (인상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 초기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실상 신고리 5·6호기 건설 철회를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산업부 간부 워크숍에서 산업부가 탈원전 등 새 정부 정책을 제대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이 공론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차관은 “탈원전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개별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 의견 비율을 포함한 공론화 결과를 내기로 했다. 또 위원회의 역할을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한정해 최종 결정은 정부 몫을 분명히 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밥값이 12억? 업무추진비는 ‘쌘짓돈’

17개 중앙행정부처 장관 업무추진비 내역 (단위: 원, 2016년 기준)

국방부	1억1008만
산업통상자원부	9425만
농림축산식품부	9304만
국토교통부	8425만
해양수산부	8293만
환경부	7850만
통일부	7769만
기획재정부	7627만
교육부	7204만
보건복지부	7160만
행정자치부	6576만
미래창조과학부	6400만
고용노동부	5766만
법무부	3859만
외교부	3859만
문화체육관광부	2361만
여성가족부	2185만

녹색당, 17개부 장관 업무추진비 조사

국방부 1.1억 등 지난해 총 11.5억 집행

대부분 회의·간담회 후 식사비 명목

외교부 월별 금액만 공개…방식 제각각

관리체계 ‘투명성 제고’ 방향 개선 시급

중앙행정부처 장관들의 업무추진비가 한 해 12억 원에 달하지만 사용처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쌘짓돈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녹색당이 2016년 17개 중앙행정부처 장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6년에만 모두 약 11억5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약 1억1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그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425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304만 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8426만 원, 해양수산부 장관이 8293만 원 순으로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각 부처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내역을 보면 주로 정책추진 관련 회의나 행사, 간담회, 또는 관계기관 업무 협의 명목으로 사용됐고 실제 사용처는 주로 회의나 행사가 끝나고 나서 들르는 식당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처별로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은 달랐

다.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국방부 장관은 사용일자와 집행내역, 사용처, 결제방법을 밝히지 않고 매월 금액만 밝혔다.

외교부 장관도 사용일자와 집행내역, 사용처, 결제방법을 밝히지 않고 분기별로 금액만 밝혔다. 유일하게 행정자치부 장관은 참석인원까지 밝히는 등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눈길을 끈다.

각 부처가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실제 장관이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장관이 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이 써서 각 실·국 사업비를 끌어와서 쓰기도 하는 등 임의적인 사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산업부 장관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수행경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지출했고 6개월 동안 모두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 수행경비라고만 쓰여 있지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각 부처 장관들이 지키지 않는 셈이다. 녹색당은 대부분이 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체계에 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식비에서 대부분 지출되고 있고 집행지침 등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며 “국회에서도 항상 국정감사를 하면 업무추진비 내역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바짝 조이는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신규 대출자 약 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3일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이 같은 대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3일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혈세 줄줄…농업보조금 부정수급 ‘3년간 190억’

2014년 186건·2015년 334건·지난해 102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매년 수백 건씩 적발

이낙연 총리 단속 지시에 농식품부 감사 계획

농식품부 보조금 예산 (단위: 억 원)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민간보조	2조1744	2조3693	2조4608	2조2407
자치단체보조	4조511	4조1748	4조1546	4조679
합계	6조2255	6조5411	6조6164	6조3086

#. 최근 농사용 비닐하우스 시설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농민이 적발됐다. 이들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년간 국고보조금 4억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눈먼 돈’으로 일컬어지는 농업 분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59조6200억 원 규모다. 이 중 농식품부 소관 보조금은 약 6조3100억 원으로 10%를 넘는다.

올해 농식품부 국고보조금 사업은 107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더하면 157건 수준이다. 전체 사업(1121건)의 14%에 달한다.

이같이 국가보조금 사업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 분야의 부정 수급은 매년 끊이지 않

고 있다. 행정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2014년 186건에 이어 2015년 334건, 지난해 102건에 이른다. 2014년은 지난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겠다며 시스템 개선에 나선 해다.

해당 3년간 농식품부가 파악한 부정수급 액수는 지금까지 190억 원 규모다. 실제 부정 수급 규모는 훨씬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이월부터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 수급 감시를 위한 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행정 신뢰도 저하가 초래된다”며 단속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으로 부정 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눈칫밥’ 휴가문화 사라진 공직사회

대통령 이어 고위직 잇단 휴가

일반 공무원들 부담감 사라져

공직사회의 휴가 문화가 달라졌다. 예전 같으면 뒷사람 눈치 보며 2~3일 다녀왔지만, 올해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일주일씩 여름휴가를 쓰고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6박 7일 일정으로 여름휴가를 떠난 데 이어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망중한을 즐긴다. 각 부 장관을 비롯해 휴가를 가기 위해 총리 승인이 필요한 정부 고위직 50명 가운데 48명이 총리에게 신청서를 내 결재까지 받은 상태이다.

A부처 관계자는 “과거에는 장차관들이 휴가를 떠나도 짧게 다녀오거나 아예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밑에 공무원들도 마음 편하게 휴가를 쓰는 게 부담스러웠다”며 “하지만 올해는 여름휴가

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인사혁신처가 본격적인 여름 시즌에 앞서 휴가를 적극 장려한 것도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지난달 초 인사처는 최장 10일까지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하고 나섰다. 특히 인사처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부처장이 출근수법에 하계휴가를 사용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기재부 공무원 B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적한 업무 현안 때문에 짧게 여름휴가를 사용했지만, 이달 말께 다시 한 번 더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이들간 피고인 신문서 “삼성물산 합병 내 뜻 아니다” 강변한 이재용 “지분 관계없이 전문 경영인 결정 신뢰”

“금융과 보험업이라는 게
설명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워
훌륭한 분들이 한 판단”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등
승계 관련 청탁 거듭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혐의 재판 총검을 앞두고,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거듭 부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 청탁과 뇌물공여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서를 이틀 만에 마무리했다. 이 부회장은 이틀째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질책받았을 당시 심경을 법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내는 등 소신 있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도 쟁점인 ‘뇌물을 주는 대가로 청탁해 해결할 현안이 있었느냐’로 특검과 삼성 측은 충돌했다. 제3자뇌물죄가 적용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전날과 같이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영재센터 후원 문제 등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될 때까지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3차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삼성물산 합병이나 금융지주사 전환 등 현안을 청탁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과 같은 현안과 관련해 거리를 두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이 부회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이 부회장은 일부 회사(옛 제일모직)의 대주주로 마치 남의 일처럼 전문경영인 결정을 존중했다는 게 설명이지만 어색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의사결정을 제일 잘할 수 있고, 기업 경험이 많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분이 많고 적은 것에 관계없이, 그 결정을 신뢰한 것이지만 방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금융과 보험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 설명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며 “제 자만인지 모르지만 삼성생명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이며 경영진은 가장 훌륭한 분들로, 이런 분들이 회사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판단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필요했다는 특검의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준비된 계열사의 현안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승계 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란 게 삼성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 부회장 재판은 오는 7일 종결된다. 이날 특검이 구형을 하고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1심 선고는 약 2주 후인 이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철우 기자 acw@

출지어 선 이재용 재판 방청객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방청객들이 줄지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립대 등 19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군산대 시작으로 줄줄이 동참
올 수시 전형료 5% 이상 인하

군산대에 이어 전국 19개 국·공립대 학생들이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키로했다. 이들 대학은 입학 전형료도 5% 이상 낮추기로 했다.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3일 대전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협의회 소속 대학들이 입학금을 없애고 전형료를 낮추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김영섭 부경대 총장을 비롯해 제일 목포대 총장, 김중호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등 10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대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지역중심 국·공립대학이 모두 동참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에 입학하는 이들 19개 대학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공립대 신입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으로 등록금 총액의 1% 수준이다. 군산대의 경우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말 입학금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지역중심 국·공립대학 총장들

은 대학 입학전형료의 경우 5% 이상 인하하기로 하고, 그 규모는 대학별로 정하기로 했다. 전형료 인하는 다음달 실시되는 수시전형부터 적용된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국·공립대의 수시·정시 모집 평균 전형료는 3만3092원이었다.

협의회에는 부경대·경남과학기술대·공주대·군산대·금오공대·목포대·서울과학기술대·서울시립대·순천대·안동대·한경대·한국교원대·한체대 등 19개 대학이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의료수가 높이고 저소득층 부담 줄이고 내년 건보료 1~3% 올린다

복지부, 인상안 이달 결정

수가 올리는 데 8234억 소요

저소득층 부과체계 개편 영향도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엔 1~3%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기조는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에 맞춰져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해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재원손실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확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년 수가(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 제공기

관에 지급하는 가격)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한 점도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발생하

는 재정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 인상폭은 1~3%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인상됐다. 2007~2008~2010~2011년엔 4~6%대 인상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2016년의 경우 수가가 1.99% 인상되면서 건보료도 0.9% 올라갔다. 올하는 수가가 2.37% 인상됐지만, 건보료는 8년 만에 동결됐다. 건강보험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면서 적립금이 20조 원 가까이 쌓여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박은평 기자 pepe@

간경화·에이즈 환자도 호스피스 받을 수 있게

말기암 외 만성 폐질환 등 혜택
요양병원·가정서도 서비스 가능

앞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란 임종에 가까워진 환자가 존엄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단하

는 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非癌)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곳,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은평 기자 pepe@

sky Drama
sky TV

THE STRAIN

매주 일요일 새벽 1시 25분 방송

싸울 것인가, 좀비가 될 것인가
인류의 생존을 건 인간과 좀비와 마지막 싸움

THE STRAIN © 2016 Fox and its related entities. All rights reserved.

채널안내 |

skyLife 35번

olleh tv 31번

B tv 40번

U tv 57번

CJ 엘로비전 45번

t-broad 57번

D'LIVE 58번

HYUNDAI 현대 HCN 141 / 203번



“내일 보자”
“내일 또 만나!”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내일 보자는 인사 속엔
오늘보다 좋은 날을 기대한다는
염원이 담겨 있듯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5G, IoT...
우리의 기술로 당신의
더 좋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담아—
SK텔레콤이 인사드립니다

SEE YOU TOMORROW!

미래 생활의 중심 | SK telecom

SEE
YOU
TOMORROW!

“STX엔진 인수 의지 있다면 누구냐”

산은, 포괄적 쇼트리스트 구성기로
예비입찰 10여군데 기업 관심 보여

STX엔진 매각 예비입찰에 10군데 가까운 기업이 관심을 표한 상황에서 채권단이 ‘진짜’ 가라기에 나섰다. 인수 형태나 제시한 가격조건보다는 인수 의지에 방점을 두고 비교적 넓은 범위의 쇼트리스트(인수적격자)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4일 IB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STX엔진 채권단과 매각주관사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주 초까지 실사에 참여할 인수적격 후보를 선정한다. 예비입찰 단계에서는 STX엔진 사업부문 전체 인수 여부나 가격 조건 등보다는 인수 후보자의 사업성이나 재무상태, 인수 의지 등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은 매각 조건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쇼트리스트를 구성하기보다는 실제 매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큰 후보들이라면 누구나 실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예비입찰에 9개 기업이 인수 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흥행했지만 실제 매각 성사까지는 분위기가 언제든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인 것

이다. 전일 기준 STX엔진의 시가총액은 3900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인수후보자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은행 등 STX엔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6개 채권금융기관은 보유 중인 보통주 1942만4300주와 의결권 없는 전환주식 464만7350주 전량을 ‘통매각’하는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일부 LOI 제출 업체들은 각각 민수부문, 방산부문 등만 분리 인수하고자 하는 등 괴리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초 범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다시 산은 관리로 넘어온 STX조선해양의 거취 역시 STX엔진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STX조선해양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한 차례 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수주 재개와 자회사와 자산매각을 통한 정상화에 집중하며 회생 조기종결로 가닥을 잡았다.

산은 관계자는 “아직 STX조선해양의 매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도 않은 단계”라며 “STX엔진 매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야 STX조선해양의 매각을 위한 주관사를 새로 선정하는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새 이사회 꾸린 손보험… 차기회장 뽑나

삼성·현대·KB 등 6개사로 구성
장남식 협회장 임기 이달 말까지
금융공기업 기관장 인사 맞물려
연말까지 인선 작업 연기 전망도

손해보험협회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차기 협회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험협 이사회는 이달 1일부터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등 6개사로 새롭게 구성됐다. 이들 회사는 내년 7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이번 이사회에 이름을 올린 보험사들은 차기 손보험회장 선출을 위해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 참여하게 된다. 회추위는 통상적으로 이사회 6개사 CEO, 외부전문가(교수) 등으로 꾸려진다. 3년 전 회추위 위원장은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이 맡았다.

장남식 협회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그러나 대규모 금융공기업 인사와 맞물려 신임 협회장 선출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공기업 전체 차원에서 인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가이던스가 정해지기 전까지 개별 인선이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

는 이에 앞서 일부 인사의 참여 의사만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금융권에서 공석이 될 자리는 은행연합회장(하영구 회장, 11월 만료), 생명보험협회장(이수창 회장, 12월 만료)이 대표적이다. 여신금융협회 부회장, 저축은행중앙회 전무도 공석인 상태다.

금융감독원장(전웅섭 원장, 11월 만료), 수출입은행장, 수협은행장, 서울보증보험 사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공기업 산하 기관장 인사 결과에 따라 협회장 인사도 크게 변동되거나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손보험회장은 그동안 주로 관 출신이 맡아왔다. 최초 민선이자 연임에도 성공한 이석용 전 협회장(1993년, 전 태평양생명 사장)을 비롯해 박종익 전 협회장(1999년, 전 메리츠화재 사장), 장남식 현 협

회장(2014년, 전 LIG손해보험 사장) 등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 출신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남식 협회장을 선출했을 때도 관 출신이 아닌 민 출신을 기용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금융공기업 인사가 끝나야 협회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장남식 협회장 후임으로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전 보험개발원장), 유관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영구 사장, 유관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3년 전에도 손보험회장 후보군으로 언급됐던 인물이다. 민간 출신 후보군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지만, 회추위 구성을 전후로 여러 후보들이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지희 기자 jhsseo@

신보, 중앙입양원과 ‘건전한 입양문화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은 중앙입양원과 3일 신보 마포사옥에서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의 권익보호 및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입양 서비스 체계화, 입양 사후관리 전문화, 입양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양 기관은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 △입양인 일자리 창출 △위기 입양인 자립지원 등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황록 신보 이사장(왼쪽)과 김원득 중앙입양원 원장이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용보증기금

5·6월 징점다리 연휴에 많이 끊었나? 2분기 카드 승인액 150조 ‘역대 최대’

미세먼지에 공기청정기·에어컨 구매 증가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35조로 18% 줄어

올해 2분기 개인카드 승인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계절적요인, 연휴 등 일회성 요인이 짙어 승인금액 증가를 경기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4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150조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이는 2012년 분기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개인카드 승인건수 역시 같은 기간 14.7% 늘어난 42억6500만 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

개인카드 실적이 증가한 배경에는 연휴, 날씨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5월, 6월 징점다리 연휴로 소비 수요가 증가했고, 고온현상 및 미세먼지로 냉방기기,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 구매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전제품 판매액은 53조9086억 원(5·6월 잠정치)으로 전년

동기(4조8869억 원) 대비 20.9% 늘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소매판매가 증가했고 더운 날씨로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종(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카드결제 금액이 확대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4~5월에 발생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조3730억 원으로 전년 동기(10조2776억 원) 대비 20.4% 증가했다.

주요소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과 봄철과 연휴를 맞아 차량을 이용한 나들이객 증가로 인한 차량용 연료 소매업종에서의 카드결제도 증가했다.

반면 2분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35조6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 줄었다. 분기별 집계 이래 최저치다. 이는 법인의 국내 카드 납부금액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카드사들이 국내 카드납부에 대한 마케팅을 축소하면서 법인들의 국내 카드납부 유인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여신금융연구소는 “국세 카드 납부금액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을 제외할 경우 올해 2분기 국내 소비 흐름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담당 직원 고소

“담보물 철저한 점검 없이 대출… 배임 혐의”

중국 안방보험의 한국 계열사인 동양생명이 고기 중보담보를 확인하지 않고 유통업체 등에 돈을 빌려줘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육류담보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을 고소했다.

동양생명은 3일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당직원의 배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고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업계에선 이번에 고소를 당한 직원이 율초 육류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1팀장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육류담보대출 사건은 동양생명을 포함 20여 곳 금융사들이 냉동창고에 보관된 담보물(고기)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고 동일한 고기를 담보로 유통업체와 창고업체에 대출을 해줘 5000억~6000억 원 규모의 사기를 당한 일이다. 중국 안방보험은 6월에는 동양생명 지분을 가지

고 있던 유안타증권(4.7%)과 보고펀드(57.6%)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안타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6890억 원이다. 2015년 2월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이 안방보험 측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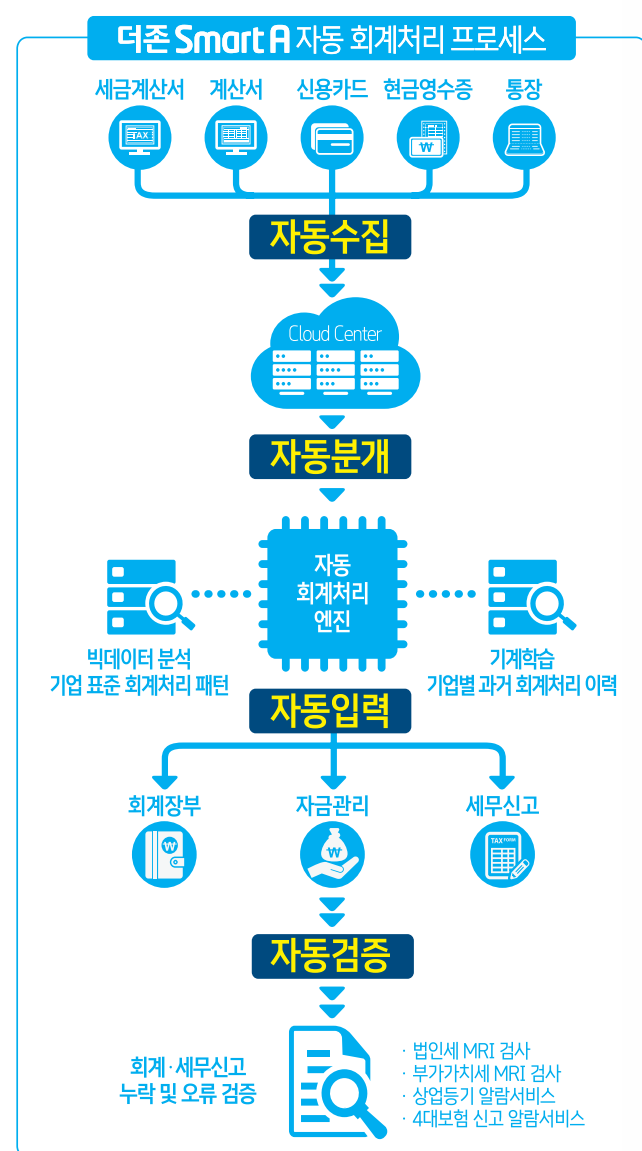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소건에 대해서 공식 외 사항은 외부에 얘기하지 말라는 법무팀 지시가 있어 추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사기로 지난해 2억2433만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당기순이익도 1578억9790만 원에서 지난해 343억8700만 원으로 78.2% 급감했다. 이번 육류담보대출로 2662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 비용처리했기 때문이다.

박규준 기자 abc84@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하려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화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이재용 결심공판 앞두고

〈삼성전자 부회장〉

긴장감 고조되는 서초동

실형 선고되면 경영공백 장기화... 1심 선고 따른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고심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7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삼성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구형 수준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탓이다. 삼성 측 주장대로 이 부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삼성은 멈춰선 경영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다. 실형이 선고되면 총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삼성의 경영 시계는 암흑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4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 수뇌부들은 결심 공판과 이후 1심 선고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에 따른 리스크와 대책을 명확히 설명해 불필요한 이야깃거리를 없애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1심 이후 국내외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거래선 및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추후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흐트러진 조직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형석이 나올 경우, 결어지는 총수



공백에 따른 이른바 ‘플랜B’도 필요하다. 삼성 한 관계자는 “물론 플랜B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화되는 일은 없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전자가 올 들어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이는 수년 전부터 대형 M&A와 투자 등을 통해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이라며 “이 부회장이 올 초 구속되고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까지 해체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

가 사라졌는데, 더 공백이 커지며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이 2월 구속된 이후 5개월여 동안 삼성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은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계열사별 자율 경영을 시작했다. 이는 한계가 있다. 계열사 간 협업이나 그룹 사업재편 등을 위한 교동정리는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총수 부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금융, 전자, 바이오 ‘삼각편대’로 구성된 사업재편이 옅소뿔됐다. 오너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대규모 인수합병(M&A) 역시 지난해 데이코와 하만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이다.

삼성 사장단 인사 역시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등 조직 역동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이번 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 공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한 이 부회장의 진술이 재판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만을 내심 바라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갤노트8 23일 공개... 얼마나 진화했나

IT매체, 최종 예상스펙 공개

6.3인치... 화면비 18.5대 9

스마트폰 첫 듀얼카메라 탑재

배터리 용량은 전작보다 줄여



갤럭시노트8 추정 이미지.

사진제공 벤처비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공개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IT전문 블로그에반 블라스가 IT전문 외신 벤처비트를 통해 갤럭시노트8의 최종 예상 스펙을 공개했다.

에반 블라스는 2일(현지시간) 갤럭시노트8 최종 구상에 대한 브리핑을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 갤럭시노트8의 외관은 갤럭시S8 시리즈와 도플갱어처럼 상당히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갤럭시노트8은 6.3인치 슈퍼아몰레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갤럭시S8 플러스보다 약간 크다. 화면 비율은 18.5대 9이며, 두께는 8.5mm, 가로·세로 길이는 각각 162.5mm, 4.6mm다.

또한 갤럭시S8 시리즈처럼 삼성이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8895가 탑재되며, 미국에서 출시되는 단말기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35 프로세서가 탑재될 예정이다. 램(RAM)은 6GB로 갤럭시S8(4GB)보다 크며, 저장공간은 64GB다. 추가 저장공간을 원하는 이용

자를 위한 마이크로SD 확장 슬롯도 별도 제공한다.

특히 갤럭시노트8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최초로 듀얼카메라를 탑재한다. 두개의 카메라 중 하나는 광각을, 다른 하나는 2배 광학 줌을 지원한다. 듀얼 카메라는 1200만 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배터리는 갤럭시노트7(3500mAh)보다 용량이 적은 3300mAh이며, USB-C 포트와 무선 충전 기능을 제공한다. 색상은 미드나잇 블랙과 메이플 골드가 먼저 공개되고, 이후 오키드 그레이, 딥 씨 블루가 차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에반 블라스는 갤럭시노트8의 유럽 출시가격이 1000유로(약 132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인맥 행사를 열고 갤럭시노트8을 공개한다. 통신업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월 15일 갤럭시노트8을 출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동통신 3사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갤럭시노트8 예약 판매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약판 매는 통상 출시 전 1~2주 이뤄지고 금요일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 달 1일이 시작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대한항공 ‘정비사 비정규직제 도입’ 시끌

대한항공이 올 들어 항공정비사(항공기술훈련생)의 채용 방식을 인턴제로 변경하면서 내부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정규직 신분의 ‘보조기술기사’로 채용해 전원 정규직 정비사로 고용했으나 올해 3월부터는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고용했다. 항공기술훈련생들은 정규직 전환율이 낮을 수 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항공기술훈련생의 채용 방식을 ‘보조기술기사’에서 ‘인턴제’로 변경했다.

대한항공의 항공기술훈련생 고용은 ‘항공기술훈련생 2년-보조기술기사 2년-정규직’ 단계를 거쳤다. 이를 ‘항공기술훈련생 2년-인턴 2년-정규직’으로 바꾼 것이다.

고졸 이상의 학력자는 공채가 아닌 항공기술훈련생 과정을 통해 항공정비사로 채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지정

한 항공기술훈련생 교육기관(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서 2년간 무상으로 정비 교육을 받으면 대형 항공사 항공정비직에 지원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매년 항공기술훈련생 30명을 선발해 일부만 ‘보조기술기사’로 채

3월부터 항공기술훈련생 채용방식

‘보조기술기사’에서 ‘인턴’으로 변경

월급·복지 등 처우는 한단계 개선...

“정규직 전환을 낮아질 것” 우려 시선

용했다. 보조기술기사는 정규직 신분이었지만 급여, 복지 등 처우가 정규직에 미치지 못했다. 정식 항공정비사보다 낮은 직급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다시 2년을 근무하면 정직원으로 전환됐다. 정직원 전환율은 95%였다.

올해 3월 대한항공은 인턴제를 도

입하면서 항공기술훈련생 30명을 모두 인턴으로 채용하고, 월급과 복지 등 처우를 한 단계 개선했다. 그러나 인턴은 비정규직 신분이기 때문에 정직원 전환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항공 항공정비사는 “2년간 훈련생으로 교육받고 정직원 전환 면접 며칠 전 바로 정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는 통보를 받았다”며 “2년 인턴으로 근무한 뒤 정직원이 될지 안 될지 정해진다면 사실상 4년을 버티야 정직원이 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턴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4년 비정규직 표현은 맞지 않다”며 “처음 2년은 단지 교육생일 뿐이고 인턴 채용 후 2년의 검증기간을 거쳐 정규직이 될 경우 기존 보조기술기사가 아닌 한 단계 높은 기술기사로 대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양용비 hyj@

‘리니지M’ 영향... 엔씨소프트 상반기 ‘게임 광고킹’

PC·모바일 등 93억 광고 집행
넷마블 27억·넥슨 25억 뒤이어
온라인 광고매출 1위는 네이버



올해 상반기 게임시장에서 엔씨소프트가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 업체인 메조미디어가 4일 공개한 ‘2017년 업종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게임업체의 PC·모바일 동영상 광고비 현황 조사에서 엔씨소프트는 올 상반기에 총 93억 원의 광고비를 투입해 광고비 1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을 통한 PC광고는 76억8000만 원, 스마트폰 등에 노출되는 모바일 광고에는 16억 2000만 원을 썼다.

지난해에는 엔씨소프트가 10위권 밖에 머물러 공식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올해 비용을 대폭 늘리면서 단순

에 1위에 등극했다. 이는 6월 21일 출시한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PC광고 비용 중 네이버에 58억 원, 약 62%가량을 사용해 광고 진행 시 네이버를 통한 집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게임즈와 넥슨은 각각 27억 원과 25억5000만 원의 광고비를 사용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PC광고 부문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모바일 광고 부문에서 각각 16억4000만 원, 9억8000만 원 등을 기록하며 2배가량 늘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198억7000만 원

의 광고 매출을 올려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카카오가 서비스하고 있는 다음(25억4000만 원), 3위는 인벤(24억 원)이 뒤를 이었다. 모바일 광고는 애드몹이 40억7000만 원, 캐시슬라이드가 19억 7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 2위를 유지했다. 동영상 광고는 유튜브가 32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배가량 늘어났으며 페이스북 8억3000만 원, 네이버 7억3000만 원의 순이었다.

게임업계의 상반기 광고비 집행이 늘어난 것은 시장 활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국 한한령 영향으로 침체됐던 게임 시장이 업체들의 잇따른 성장,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 발표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온라인 IP를 기반으로 한 인기 게임이 대거 출시돼 인기를 끌었다. 하반기에도 신규 기술인 VR(가상현실)와 AR(증강현실)을 활용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어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준 기자 tiatio@

한화토탈, 창사 첫 글로벌 신용등급 획득

무디스·S&P서 ‘안정적’ 평가... 해외증권 등 자금조달 확대 기대

한화토탈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안정적인 재무건전성과 전전후 사업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해외증권 발행 등 글로벌 자금조달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한화토탈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한 결과 각각 Baa1, BBB를 받았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신용평가사들은 한화토탈의 올레핀과 방향족 사업을 동시에 보유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원료다변화 등을 통한 우수한 원가구조 및 높은 공장 운영 효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같은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또한 약 2조 원을 투자해 2014년 완공한 방향족 2공장과 CFU 공장의 가동 후 주요 제품의 생산량 확대, 원가 구조 개선 및 석유화학 연합 호조에 따른 이



‘V30’ 외신발 유휘 사진.

한 것도 한몫했다.

LG전자는 G6를 내놓고 최대 매출처이자 전략적 요충지 북미를 공략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북미에 출시하는 제품에만 무선 충전기능을 탑재했고, AS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

려주는 과격적인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쟁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이 북미에서 크게 인기를 끌며 점유율을 확대할 수 없었다는 평가다.

LG전자는 하반기 V30을 통해 반동의 발판을 마련한다. V30은 31일 유럽 가전 쇼 ‘IFA 2017’ 개막 하루 전 공개된다. 북미 시장뿐 아니라 유럽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LG전자는 V30의 주요 기능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내놓으며 제품을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기대감을 선사하고 있다. V30은 18대 9 화면 비율의 6인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채택한다. 로고가 있던 하단 테두리를 V20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로고는 뒷면으로 옮겼다.

한편, 주요 외신에 따르면 V30 국내 출시는 9월 15일, 북미 출시는 같은 달 28일로 예상된다. 정유현 기자 yhssoo@

삼성重, 안전 마스터플랜 발표

잇따른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았던 삼성중공업이 안전한 작업장을 구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4일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은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한 신(新)안전문화 조성 △스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 △정기 안전점검, 국제 기준 적용 등을 통한 잠재 위험요소 발굴 및 제거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삼성중공업은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해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조직을 본부 단위로 격상한 ‘안전경영본부’도 새로 만들었다. 본부장은 글로벌 안전관리 전문가로 9월 내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회사는 신(新)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임원과 팀장, 그룹장을 대상으로 안전리더십 코칭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12대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안전 책임관 리도 강화하는 등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양용비 기자 dragonfly@

분당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안전성 통과 '1기 신도시' 중 처음

1989년부터 경기도에 조성된 1기 신도시 중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가 분당에서 나왔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의 신도시인 분당에서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1156가구가 한국건설연구원의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심의를 지난달 21일 통과했다.

분당을 비롯해 안양의 평촌신도시, 고양의 일산신도시, 군포의 산본신도시, 부천의 중동신도시의 아파트 중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심의가 통과된 사례는 이 단지가 처음이다.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는 기본 리모델링 설계안을 토대로 수직 축중의 안전성을 따져보는 절차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 건물을 수선·증축하는 행위로, 준공 연도 기준 15년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이달 중 성남시의 건축심의를 받고, 조합원 권리변동 계획 수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내에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데 성공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하반기부터는 주민 이주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분당 한솔마을을 신호탄으로 분당을 포함한 나머지 1기 신도시들의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웅 기자 cogito@

‘시평 1조’ 중견 건설사, 눈길 끄는 하반기 분양

아이에스동서·삼호·효성·대방 등 7곳 '1조클럽' 신규진입 택지지구 중심 공급 늘고 경기호황 따라 신용등급 올라

작년보다 17계단 오른 반도, 이달 강원 원주에 794가구 제일, 서울 구로 향동지구… 화성산업, 파주운정신도시

2017년 시공능력평가순위가 급등한 중견건설사 공급 물량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전용면적(㎡)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1~2블록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48	59~84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2~2블록		794	
서울 구로구 향동 향동지구7블록	구로 향동지구 제일풍경채	345	84~101
세종시 2~4생활권 P3블록	제일풍경채(가칭)	771	미정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신도시 A32블록	파주 운정신도시 화성파크드림	1050	59~84(미정)
전남 전주시 완산구 전주효천지구 A4블록	전주효천지구 대방노블랜드	1370	미정

※ 출처: 각 건설사

30대 건설사 반열에 올라섰다. 아이에스동서와 제일건설, 금강주택 등도 각각 15계단 넘게 올라 5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중견사들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건설사에 7개사가 새롭게 진입할 정도로 중견사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올해 새로

게 진입한 중견사는 △반도건설(27위) △아이에스동서(28위) △삼호(29위) △효성(30위) △대방건설(31위) △서희건설(32위) △화성산업(34위) 등이다.

시장에서도 시공능력평가가 상승한 건설사들이 하반기에 분양할 아파트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반도건설은 이달 중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에서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2개 블록, 13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2블록은 지하 2층~지상 30층, 6개 동, 전용 59~84㎡, 548가구 규모이며 △2-2블록은 지하 2층~지상 30층, 8개 동, 전용 59~84㎡, 794가구 규모이다. 단지 내에는 원주기업도시 최초로 별동학습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바로 옆으로는 유치원이, 도보권에는 초·중·고교가 개교할 예정으로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

제일건설도 이달 서울시 구로구 향동 일대 구로향동지구 7블록에 '구로 향동지구 제일풍경채'를 공급하고 10월에는 세종시 2-4생활권 P-3블록에서 주상복합 771가구를 분양한다. 세종시 물량의 경우 국토청과 한국정책방송원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또 상암지구 내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할 전망이다.

화성산업은 올 하반기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파주운정신도시 A32블록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화성파크드림'을 분양할 계획이다. 대방건설은 9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효천지구 A4블록에서 '전주효천지구 대방노블랜드' 1370가구를 분양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광복·포켓·루프탑 등 쏠가구 테라스 제공

한화건설 '여수 웅천 꿈에그린…'

인근 마리아 시설·에듀파크 등

한화건설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 1866-1867번지 일대에서 테라스하우스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를 이달에 분양한다.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는 지하 1층~지상 4층, 총 452가구, 2개 단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1단지는 △84㎡ 112가구 △117㎡ 24가구 △138㎡ 8가구 등 144가구이다. 2단지는 △84㎡ 236가구 △117㎡ 64가구 △138㎡ 8가구로 3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한화건설이 지난해 6월 '여수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1781가구에 이어 여수의 중심부인 웅천지구에서 선보이는 두 번째 주택이다. '여수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는 1주일 만에 완판되는 흥행을 일으킨 바 있다.

'더 테라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 가구에 타임빌로 테라스가 공급된다. 84A 타임에는 광복테라스와 앞마당 정원이, 84B에는 4베이 판상형 전면에 걸친 테라스가, 84C에는 이순신공원 조망이 가능한 포켓테라스가, 84D에는 다락방과 함께 루프탑 테라스 등 개성이 다른 테라스를 조성했다. 수요자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세분화한 것이다. 모든 가구가 테라스를 갖춘 단지는 여수에서 최초다.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 조감도

웅천지구는 여수시가 마리아 시설, 호텔, 종합병원, 휴양시설, 친수공간, 에듀파크 등을 계획해 해양레저도시로 특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엔 '웅천요트마리나'가 개장했으며, 단지 뒤편으로 여의도공원 1.5배 넓이의 이순신공원이, 남쪽으로는 마리나항 요트계류장이 있다.

교통 환경은 KTX 여천역, 여수 종합버스터미널 등 광역 교통시설이 가까이 있어 여수 도심권을 약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2021년에는 도심외부순환도로 기능을 담당할 웅천-소호 해상교량 준공이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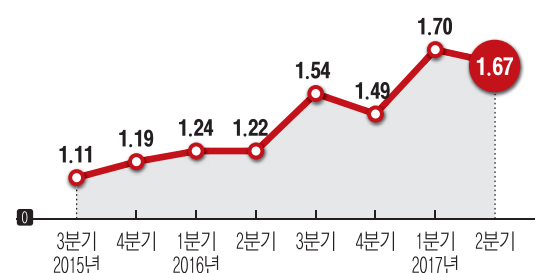
건본주택은 여수시 박람회길1 여수엑스포장 국제관 B동에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9년 말에 예정돼 있다.

김정웅 기자 cogito@

2분기 서울 프라임급 오피스 空室率 늘었다

전분기보다 2.4%p↑...평균 수익률 1.67%

서울 프라임급 오피스 투자수익률 추이(단위: %)



올해 2분기 서울지역 내 프라임급 오피스의 공실률이 전 분기에 비해 오르고 투자수익률은 하락한 반면, 분당·부산 지역의 공실률은 떨어지고 투자수익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2분기 프라임급 오피스의 공실률, 투자수익률, 임대료 등 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프라임급 오피스는 건축연면적 기준 서울은 3만3000㎡ 이상, 분당·부산·인천(송도)은 1만6500㎡ 이상의 오피스 빌딩을 뜻한다.

감정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 평균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2.4%p 증가한 13.2%를 기록했다. 분당은 10.0%p 감소한 8.4%, 부산은 전 분기 대비 0.6%p 줄어 14.4%로 집계됐다. 인천 송도는 전 분기 대비 보험 수준을 유지한 42.1%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공실률 수준을 보였다.

서울은 대기업 계열사 이전, 신규 사옥 공급 등으로 이전 수요가 발생해 대부분 권역의 공실률이

올랐다. 분당은 권역 내 대기업 임대차 계약의 영향으로 공실률이 대폭 떨어졌다.

서울 오피스의 투자수익률은 평균 1.67%였다. 권역별로는 강남권(GBD), 종로권(CBD)의 투자수익률이 올랐지만, 여의도권(YBD)은 하락해 서울 전체 투자수익률은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분당과 부산의 투자수익률은 각각 2.09%, 1.61%를 기록했다.

서울 평균 임대료는 2만5100원/㎡, 부산은 8300원/㎡으로 각각 0.4%, 0.3% 상승했다. 인천 송도는 81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보험 수준을 유지했다. 분당은 1만70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성현 기자 carlove@

Time is our tradition.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908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6191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89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02)6965-2637 롯데아울렛 광명점 02)6226-2142 롯데아울렛 광교점 031)8064-2168 롯데아울렛 부여점 041)435-2608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02)2283-2118 현대아이파크백화점 용산점 02)2012-4146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37 신세계백화점 충정점 041)640-5081 이타입월드 02)313-4108 타임갤러리 070)8265-5528 이노아이 02)6002-6123 시계상자 031)441-0802 사본워치 031)463-9788 타임24 031)931-5555 WB(워치보이) 070)8632-5300 피크타임 031)506-3886 타임컬렉션 031)575-1866 패션아일랜드(에진) 042)280-9117 복외치 043)223-1333 명성시계 051)253-5354

[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 63점 02)2136-2646 두터면세점 02)3399-9372 동화면세점 02)1689-6680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02)6370-4072 신라면세점 서울점 02)2230-3997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064)780-7869 SM면세점 서울점 02)2120-6027



이제 동반자금융 입니다!



IBK의 첫번째 혁신 [동반자금융]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지켜온 IBK기업은행이 더 능동적이고 더 창의적인 '동반자금융'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하겠습니다

당신을 이롭게 금융을 혁신하다
Innovation Bank of Korea

01

성장금융

Scale-up 금융 플랫폼

창업기업의 생존을 넘어
성공을 지원하는 성장금융

02

재도약금융

Level-up 금융 플랫폼

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재도약금융

03

선순환금융

Cycle-up 금융 플랫폼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입을
지원하는 선순환금융

결함 있는 리콜 자동차로 리스사업하다 들통 잡음 끊이지 않는 우버, 막장 어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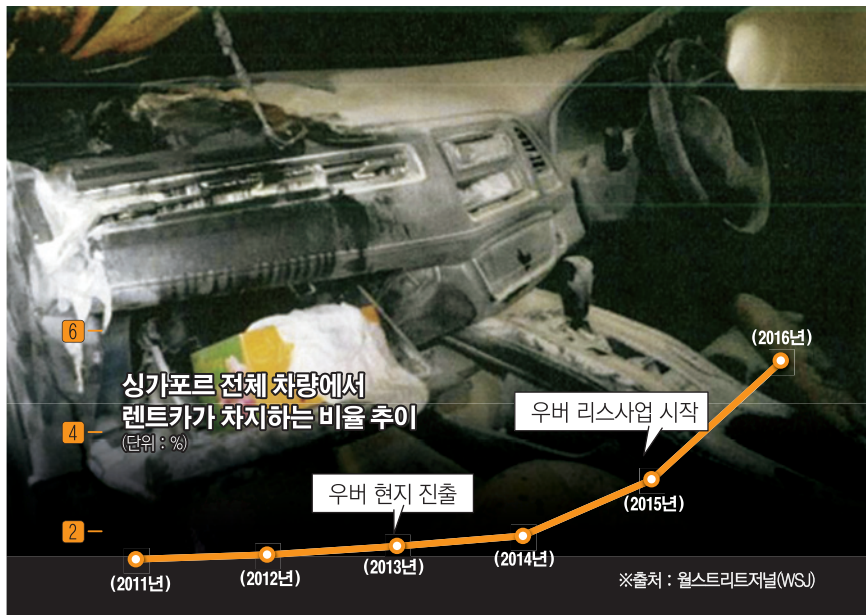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희롱과 인종 차별 등 사내에 만연한 마초 문화로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가운데 이번엔 결함 있는 차량을 우버 운전기사들에게 대어줬다가 연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몰던 혼다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베젤(Vezel)’ 계기판에서 불안한 불꽃이 튀더니 차량 내부가 녹아내리고 앞유리에 축구공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다행히 운전기사가 몸을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사고는 우버가 얼마나 방만하고 안전에 무감각한 경영을 펼치는지 다시 상기시켰다.

WSJ는 우버가 리콜 사실을 이미 알고도 혼다의 베젤을 1000대 이상 구입했고, 수리 조치도 없이 운전기사들에게 대어해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래비스 칼라니 설립자가 6월 성추행 등 사내 저질 문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관리 부실’이라는 새로운 약재가 타진 것이다.

앞서 혼다는 지난해 4월 베젤의 전자 부품이 과열로 차량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며 리콜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버 싱가포르 법인 관리자들은 뻔히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차량 화재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WSJ는 당시 사고와 관련해 우버 내부 이메일과 문서를 검토하고 관계자와 인터뷰해 이번에 이를 공론화한 것이다.

2013년 우버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지난 1월 화재 사고가 난 우버 차량 내부.

월스트리트저널(WSJ)

운전기사 구하기 어려운 싱가포르에 리스社 설립·車 대여 혼다 ‘베젤’ 구입 후 수리 안한 채 영업… 결국 운행중 화재 WSJ 입수 이메일서 밝혀져… 사고 이후 안이한 대응 도마

진출한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교통정체 등의 이유로 차량 보유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어 운전기사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우버는 2015년 2월 차량 리스업체 라이언시티렌탈스(LCR)를 설립하고 우버 운전기사들에게 하루 50달러(약 5만 6400원)를 받고 대여했다.

우버는 혼다와 도요타 등으로부터 공인받은 딜러망을 통하는 대신 수입업체들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했다. 이는 차량 점검과 정비 등 안전과 관련한 서비스

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들 수입업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부품 부족 등으로 차량을 수리하기가 어렵다고 통보했으나 우버는 리콜 과정을 신속히 하라는 재촉 이메일만 보내고 결함 있는 차량을 계속 대여했다고 WSJ는 밝혔다. 싱가포르 보험업체는 화재 피해와 관련해 우버에 보상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우버가 이미 리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차량을 운행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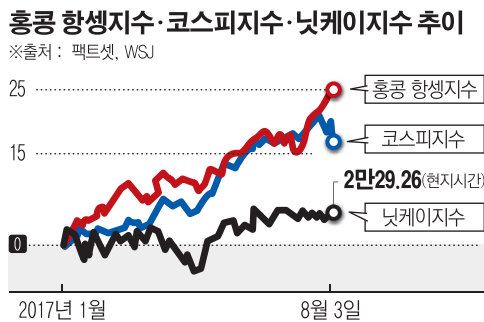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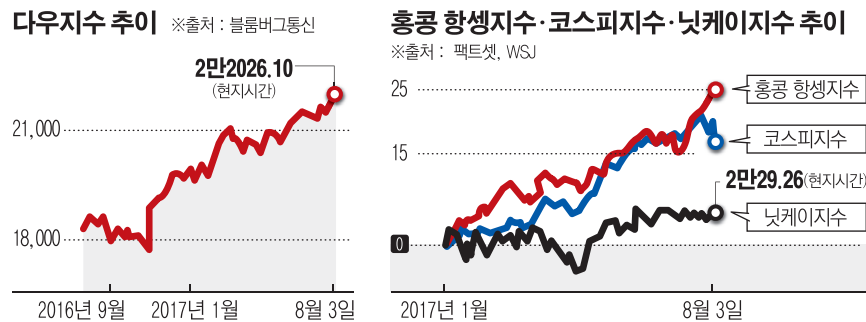
사고 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우버의 대응은 안이했다. 사고 발생 3일

뒤에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우버 임원들이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결함 있는 차량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 부품을 올 때까지 문제의 전자기기를 꺼두고 차는 계속 대여하는 것이 대응 방안의 전부였다. 우버 일부 직원들은 안전과 브랜드 이미지 등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면 운행 중단을 주장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담당자는 운행 중단으로 일주일 약 1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우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1월 이후 수리 과정에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수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불확실하다. 혼다는 우버가 공인되지 않은 판매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대해 책임이 없다며 수리를 돕거나 해당 부품의 안전성이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것을 거부했다. 우버도 혼다가 수리 법적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창사 8년 만에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한 우버. 여기에는 현지 상황에 밝은 지역 관리자들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임에도 그에 걸맞은 경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다른 다국적 기업이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시스템과 전문 관리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버에는 최고재무책임자(CFO)나 최고운영책임자(COO)도 없다. 글로벌 안전 관리 담당 대표는 지난해 회사를 떠났으며 보험 책임자가 그 역할을 겸임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야성적 충동’에 취한 글로벌 증시 아베스캔들+엔고에 일본만 왕따

美 다우, 7일 연속 ‘사상 최고치’ 亞 지역도 올해 들어 15% 급등 정치 무관 ‘동물적 감각’으로 투자 日기업 好실적에도 상승폭 낮아

글로벌 증시가 ‘애니멀 스피릿(animal spirits, 야성적 충동)’에 취해 거침없이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증시만 왕따 신세다. 글로벌 증시 호조 속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스캔들과 엔고가 일본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86포인트(0.04%) 상승한 2만 2026.10으로 마감했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2만2000선을 뚫은 다우는 이날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안한 세제개혁안, 인프라 투자 정책 등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지만, 시장은 이를 과녁치 않고 있다.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1% 상승했다.

투자 전문가들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애니멀 스피릿이 발휘됐다고 분석했다. 애니멀 스피릿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려는 충동을 뜻하는 경제이론이다. 규제 완화, 세제개혁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기보다 동물적 감각으로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기업들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고,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등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이다.

아시아 일부 주식시장에서도 올해 주

가지수가 15% 이상 급등하는 등 글로벌 증시에 전반적인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주식시장은 이를 비껴가는 모양새다. 일본 증시에서 닛케이225지수는 올해 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일본 기업들이 견실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일본은행(BoJ)이 비둘기적(통화 완화) 기조를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상승률은 저조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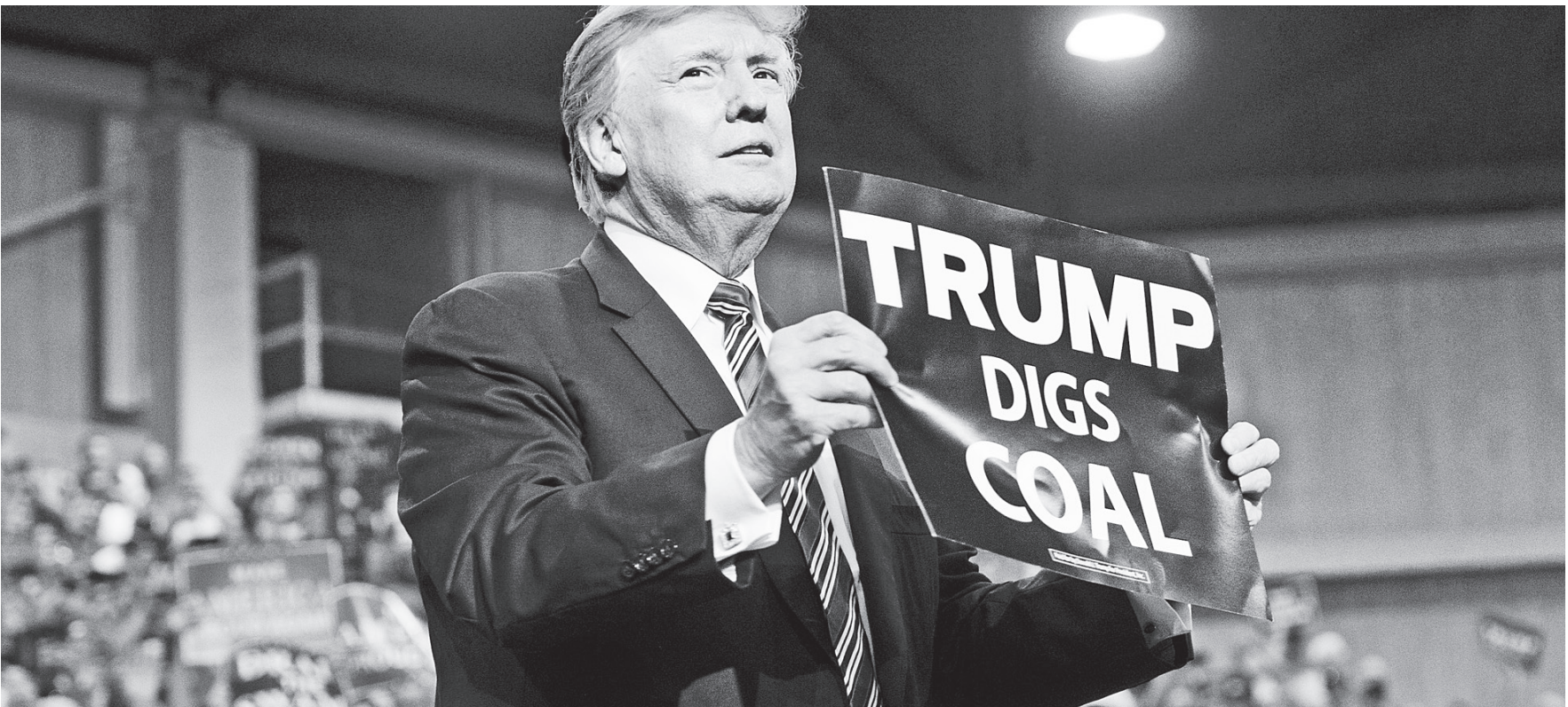
일본 증시의 장애물로 엔고와 아베 총리가 밟아낸 정치적 불확실성이 꼽힌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 들어 약 10% 떨어졌다. 루돌프그로스의 집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달러화 가치 하락이 그 어떤 뉴스보다 다우지수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엔화 가치는 상승해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

아베 총리의 최근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져 그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향한 의구심이 커졌다. 구조 개혁을 추진할 힘이 지지율 하락과 함께 빠져나갔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을 주저케 한다. 미즈호증권의 기쿠치 마사토시 애널리스트는 “9월 말까지 닛케이지수는 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본 기업의 실적 전망이 밝아 아베 비판적인 것만은 아니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이번 주 투자 노트에서 “비록 정치적 잡음이 불거지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의 강한 실적은 일본 주식시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석탄의 도시’ 웨스트버지니아 표심몰이 나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 헌팅턴에 있는 실내경기장 빅 샌디 슈퍼스토어 아레나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에서 ‘트럼프는 석탄을 캐겠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지지자들에게 유세하고 있다. 트럼프는 작년 대선 당시 석탄의 도시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서 도태된 석탄 산업의 부흥을 내걸었다. 짐 자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번 트럼프의 방문을 앞두고 얼마 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4일부터 17일간 취임 후 첫 번째 장기 휴가에 들어간다.

헌팅턴/AFP연합뉴스

허친스, 랜섬웨어 막은 영웅인 줄 알았더니… 해킹 범죄자였네

인터넷뱅킹 공격 ‘트로이 목마’ 제작·유포… FBI에 체포

5월 전 세계를 공격했던 랜섬웨어를 차단하는 ‘킬 스위치’를 만들어 영웅이 된 20대 영국 청년 마커스 허친스(사진)가 한순간에 악당으로 전락했다. 인터넷뱅킹을 해킹하는 악성웨어를 제작·유포한 범죄자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고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 정부 기관과 기업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당시 허친스는 휴가 중이었으나 병원 수술 중단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을 접하고 영국 데번의 자택 침실에서 랜섬웨어 확산을 차단하는 킬 스위치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세계적인 영웅이 됐다.

하지만 허친스는 이달 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관련 포럼에 참석 도중 FBI에 구속됐다. 허친스의 친구는 그가 라스베이거스의 매캐런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그를 악성웨어 제작과 유교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은 “허친스가 은행들을 사이버 공격할 때 쓰이는 악성 소프트웨어인 ‘크로노스 뱅킹



고 설명했다.

범행은 2014~2015년에 일어났다. 범무부는 허친스가 컴퓨터 사기, 전자통신 차단 장치 배포와 해킹, 허가 없는 컴퓨터 접근 시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총 6건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FBI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2년간의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를 제작했다”며 “다른 공모자와 함께 인터넷 포럼 등에서 이를 2000~3000달러(약 226만~339만원)에 판매했다”

긴 수사 끝에 허친스의 탈미를 잡았다. 담당 요원인 저스틴 톨로메오는 “사이버 범죄자들은 매년 미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다”며 “사이버 범죄는 FBI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국내외 파트너들과 협력해 범죄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로노스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통해 저장되거나 처리되는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로, 캐나다와 독일, 영국 등에서 사용자 정보를 빼내도록 설계됐다. 크로노스는 이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통해 유포됐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테크 인사이트 AR 프로젝터 베팅하는 日 전자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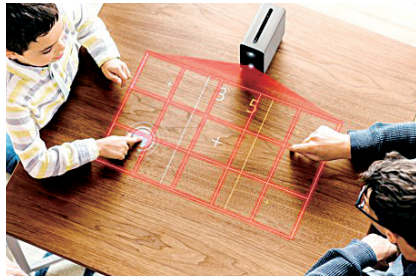
영화처럼… 바다·벽에 화면 띄워 터치

광원, 램프→레이저…초점거리 단축 소니 ‘엑스페리아 터치’ 영상통화도 텐소, 車 유리에 경고 뜨는 기술개발

‘증강현실(AR)’이라고 하면 안경 형태의 구글글래스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홀로렌즈 헤드셋이 가장 먼저 연상된다. 그러나 최근 비약적인 기술 향상을 바탕으로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 전자업체들이 AR 프로젝트에 베팅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다.

프로젝터가 과거보다 소형화·경량화되고 광원이 기존 램프 대신 레이저로 대체되면서 이 기기를 AR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존 프로젝트에 쓰였던 수는 램프는 수명이 수천 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밝기가 개선되고 초점 거리가 짧아지면서 다양한 실생활 환경에서 프로젝터를 AR 기기처럼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프로젝트의 발전을 바탕으로 6월 소니가 출시한 신제품이 ‘엑스페리아 터치’다.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이 소형 프로젝트는 단순히 벽에 비춰 영화나 TV 등을 감상하는 것 이외에 식탁과 거실 바닥 등에 화면을 투영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터치 스크린처럼 쓸 수 있다. 카메라와 마이크 등을 사용해 큰 화면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으며 음성인식 기능도 있어 앱 재생과 뉴



소니의 증강현실(AR) 프로젝트 ‘엑스페리아 터치’.
출처: 소니 웹사이트

스 검색 등도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안경이나 헤드셋을 착용할 필요 없이 현실 공간에 컴퓨터 그래픽과 문자 등을 겹쳐 보여주는 AR 환경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차량 운전과 산업용 등 AR 프로젝트의 쓰임새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텐소는 카메라로 외부 상황을 파악해 경로 안내 화살표와 돌발 상황 경고문 등을 차량 앞 유리창에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물류센터에서의 화물 분류 표시 등 작업 효율화에서 수술 지원이라는 의학적 용도에 이르기까지 기업용 AR 프로젝트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AR 프로젝트는 여러 사람이 같은 영상을 보고 있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고 인원 수만큼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기업용으로 쓰기에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일본 전기통신대학 연구진은 요철이 있는 컷 등에서도 영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교통수단에 ‘혁신’ 태워 어디든지 달려갈 것”

1일 공식출범한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

“이제껏 ‘이동성(Mobility)’이라는 영역에 혁신이 녹아 있지 않았어요. 여러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땀 한땀 바닥부터 만들어가는 치열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차분한 말투 속에는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게 배어 있었다. 카카오택시와 대리운전 등 스마트 모빌리티(차세대 이동수단) 사업을 전문화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그 중심에는 서비스 개발부터 실무자로 이 사업을 이끌어온 정주환(39) 대표가 있다.

앞서 정 대표는 카카오 O2O 사업 부문을 총괄해왔다. 카카오택시 출시를 시작으로 카카오내비(내비게이션), 카카오지하철(지하철 시간 정보), 카카오버스(버스 도착시간 확인), 카카오드라이브(대리운전) 등 차량과 연결된 O2O서비스가 그의 손에서 시작했다. “오프라인의 불편함을 모바일로 해소해보자”는 게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촉매제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사하면서 카카오 직원 150여 명도 새 회사로 소속을 옮겼다. 주력 사업인 카카오택시에 3분기 안에 기업용 업무택시 서비스와 카

택시·내비·지하철·버스 등 車 관련 O2O 서비스 총괄 사업 세분화 위해 분사 결정

최근 5000억 투자금 유치 해외진출 통해 수익성 확보 내년부터 가시적 성과 기대

카오페이 자동결제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주차장 검색·예약·결제 등 기능이 담긴 ‘카카오파크’(가칭)도 내놓을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사는 ‘집중을 위한 선택’이었다.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내년께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분사는 사업 영역을 더 세분화하고 전문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올 연말쯤에는 지금까지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성과가 보이고, 내년 정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TPG로부터 5000억 원의



카카오모빌리티의 정주환 대표는 “차 관련 O2O서비스를 분사한 것은 집중을 위한 선택”이라며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카카오모빌리티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차량공유서비스 ‘우버’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등에 투자한 글로벌 투자자다. 정 대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모빌리티 사업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성장을 위해 좋은 인력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업무협약을 맺은 일본 ‘재팬 택시’와는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나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일본을 넘어

다른 국가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영역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진출할 예정이냐”는 물음에는 “기업으로서 자연스럽게 수익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가 추구해온 카카오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어느 틈엔가 우리 주변에 성큼 다가와 있다. “카카오로 소통하고 카카오톡을 움직인다”는 카카오의 생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택시운전사’ 배우 송강호 판타지아영화제 남우주연상

영화 ‘택시운전사’의 송강호(사진)가 2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폐막한 제21회 판타지아영화제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송강호는 2007년 제11회 판타지아영화제서 ‘우아한 세계’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후 10년 만에 다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폐막식에는 ‘택시운전사’를 연출한 장훈 감독이 참석, 송강호를 대신해 수상했다.

영화제 측은 “자칫 교훈적으로 흐를 수 있는 역사 속 이야기 안에서 송강호가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관객들을 만섭이라는 캐릭터에 몰입시켰다”고 호평했다.

부음

▲강성욱(GE코리아 총괄사장)씨 장인상 = 3일,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02-3010-2292

▲이현(대신증권 수원지점 차장)씨 부친상 = 3일, 수원시연화장, 발인 5일, 031-218-6592

▲박동원(전 제일모직 상무)씨 별세, 창규(삼성SDS 인프라기술팀 부장)·상규(대운중교문화연구소장)씨 부친상, 여경국(분당제생병원 구매팀장)씨 장인상 = 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02-3410-6920

▲박시균(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씨 별세, 최영자(정봉의료재단 상임이사)씨 남편상, 종원·은영·은미·소현씨 부친상, 강인구씨 장인상 = 3일, 경북 영주 성누가병원, 발인 5일, 054-635-4444

‘과학 꿈나무’ 무럭무럭 자라나는 LG사이언스홀

카이스트와 창의융합형 교육 교수·재학생, 강사·멘토 참여 ‘4차산업혁명’ 주제로 실습 ‘코딩지니어스’ 선발된 중학생 직접 자율주행 솔루션 코딩

LG가 카이스트와 함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 융합형 청소년 인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LG사이언스홀은 1일부터 4일까지 대전 카이스트에서 스마트홀,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직접 설계해 구현해보는 ‘LG-카이스트 사랑의 영어과학캠프’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 중 과학에 재능 있는 초·중학생 5~6학년 80명을 선발하여 내년 초까지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과학교육을 지원한다.



LG사이언스홀이 주최한 ‘LG-카이스트 사랑의 영어과학캠프’에 참가한 초·중·고 학생들이 스마트홀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LG그룹

이번 캠프에는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 연구원 교수진 및 재학생 등 20여 명이 강사와 멘토로 참여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실습 중심의 융복합 과학교육을 영어로 진행했다.

캠프에 참가한 80명의 초·중·고 학생들은 10월부터 2년간 온라인 심화교육을 받으며, 성적이 우수한 40명은 내년 1월 카이스트에서 심화과정 캠프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LG CNS는 올 상반기 서울시 교

육청과 9개 중학교에서 실시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 ‘코딩지니어스에서 재능을 보인 중학생 30명을 선발해 IT드림프로젝트를 1일부터 3박 4일간 진행했다.

LG CNS와 카이스트는 참가 학생들이 직접 코딩한 자율주행 솔루션을 모형 자동차와 스마트폰 앱에 적용시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사진제공 SPC그룹

SPC그룹, 결식아동에 해피포인트 5000만점 파riba게뜨·던킨도너츠 등 전국 매장서 현금처럼 사용

SPC그룹은 방학을 맞아 저소득가정 아동 500명에게 전국 SPC그룹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피포인트 총 5000만 포인트를 후원한다고 3일 밝혔다. SPC그룹은 이날 아동복지전문기관

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에서 해피포인트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해피포인트 전달식’을 갖고 10만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 500장을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전달했다.



사진제공 삼성물산

라가 상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민 대부분이 세계은행에서 지정한 국가별 최소 소득 수준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다.

삼성물산 임직원과 가족 등 총 30여 명으로 이루어진 해외봉사단은 국제 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 현지 협력사 다이아몬드 스타사와 함께 학교 내외부 보수공사부터 교실 페인트 칠하기, 신발장 제작, 식수대 설치, 놀이터 조성 등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해외봉사 활동

은 2011년 인도를 시작으로 올해 7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매년 임직원이 개인 휴가를 활용해 가족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국여성 인물사전

〈169〉 안길(安吉)의 처(妻)

남편 손님 잠자리 시중 든 통일신라 여인

안길(安吉)의 처는 통일신라시대 여성으로 성씨도 이름도 남아 있지 않다. 남편의 이름은 안길이지만 안길의 처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안길에게는 여러 명의 처첩(妻妾)이 있었고 그중 한 명에 불과하다. 엄격하게 처(妻)였는지 첩(妾)이었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남편인 안길은 무진주(武珍州·오늘날 광주(光州) 일대)의 관리였다. 어느 날 무진주에 스님 옷을 입고 손에 비파를 든 거사(居士) 한 사람이 와서 마을 이곳저곳을 살피고 다녔다. 안길은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정성껏 대접한 다음 밤이 되자 안길은 처첩 세 사람을 불러, “오늘 밤에 거사 손님을 모시고 자는 사람은 종신토록 해로(僥倖)을 하겠다”라고 했다.

안길의 말을 듣고 두 처는, “차라리 함께 살지 못할지언정, 어떻게든 사람과 함께 잠자리를 하겠습니까?”라며 거절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처는 남편이 종신토록 함께 살겠다고만 한다면 명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뜻을 따라 손님의 잠자리 시중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손님은 떠나면서 서울(경주)에 오게 되면 꼭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거사 차림의 이 손님은 문무왕(文武王)의 서제(庶弟)인 거득공(庫得公)이었다. 문무왕이 재상(宰相)으로 임명하려 하자 먼저 지방의 사정을 살펴본 다음 취임하겠다고 지방을 시찰하고 있던 것이었다. 훗날 안길은 서울에 갈 일이 생기자 거득공을 찾

았다. 안길이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득공은 달려 나와 손을 잡고 궁중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부인을 불러내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다.

또한 문무왕에게 아뢰어 성부산(星浮山) 아래 지역을 무진주 상수리(上守尉)인 안길의 소목전(僦木田·궁중과 여러 관청에 공출하는 연료 밭)으로 삼아 벌채를 금지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였다고 한다. 이 산 아래에는 밭 30묘(畝)가 있어 종자 세 섬을 뿌리는데 이 밭이 풍작이면 무진주도 풍작이 되고, 흉년이면 무진주도 역시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

아내에게 집에 찾아온 손님의 잠자리 시중을 듣게 하는 대처제(貸妻制)는 오늘날 관념에서는 이상해 보이지만 고대에는 적지 않은 지역에서 행해졌으며 오늘날에도 일부 행해지고 있다. 안길의 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안길의 제안을 거절한 두 처(妻)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신라시대에는 이미 일반적인 풍습은 아니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왜 안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남편의 출세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을까? 어쩌면 그 여성은 두 처와는 처지가 달라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유는 알 길이 없지만, 통일신라시대에 남편과 종신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손님의 잠자리 시중을 들어야 했던 이름도 남기지 못한 한 여성이 있었던 것이다.

김선주 중앙대 강사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관립추진협의회

정영수 그룹엠코리아 새 대표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선출

미디어 투자그룹 그룹엠의 한국지사인 ㈜그룹엠코리아는 신임대표로 정영수(사진)씨를 선임했다.

정 신임 대표는 미국 액센추어 컨설턴트를 거쳐 이베이, 트래블러시티 등 온라인 기업에서 경영자로 일해왔다. 그룹엠 측은 “한국은 미디어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라며 “정 신임 대표가 직원 모두의 목표를 달성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에 허욱(55·사진) 상임위원이 선출됐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4기 방통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허 상임위원을 호선을 통해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허 부위원장은 CBS 보도국 기자 출신으로 경제부·기획조정실 등을 거쳤고 CBS 대표이사, 엑스퍼트 컨설턴트 가치경영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인사

◆경찰청 (치안감 승진 및 전보) △경찰청 수사국장 허경렬 △정보국장 이용표 △외사국장 이준섭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은하 (치안감 전보) △경찰청 기획조정관 민갑룡 △보안국장 이재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정청배 △광주지방경찰청장 배용주 △경남지방경찰청장 원경환

◆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업소 이영준 △문화예술과 송원재 △특별사범경찰과 전필건 △신공항공도시과 권재섭 △여성가족과 박시환 △의료산업과 김태원 △관광개발추진단 김창수 △통신진흥과 김영심 △클린에너지추진단 TF 안재홍 △서비스금융과 조진숙 △인재개발원 순정우 △상수도사업본부 조문재 △여성화관 차정순 △염곡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옥경 △차량등록사업소 박상현 △아동보호종합센터 이주현 △공공윤영과 안구현 △해양산업과 이남규 △토지정보과 김병진

◆경상북도 △의회사무처장 김중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농축산

유통국장 직무대리 김주령 △환경산업자원국장 김진현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임성희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이동욱 △경주부시장 강철구 △영주부시장 김재광 △상주시부시장 추교훈 △칠곡부군수 서문환 △문경부시장 권기섭 △의성부군수 김창우 △예천부군수 이재운 △경북대 파견 민간인 △동북아사무국 파견 박창수 △정부무실장 김순진

◆한국서부발전 △신성장사업단 신재생 사업처장 이여준 △신성장사업단 해외사업실장 김병철 △신재생사업처 신재생총괄팀장 한상문 △보안정보전략처 IT총괄지원팀장 임정래 △건설기술실장 김영남 △서인천발전본부 부장 유인승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승진) △ICT 통계정보연구실 ICT산업·교육통계분석그룹장 정혁 △ICT 통계정보연구실 데이터사이언스그룹장 정용찬

◆조선대 △기획조정실장 겸 대학특성화지원센터장 이정섭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재수 △취업학정책처 이인화 △대외협력처장 김성중 △인사혁신처장 윤갑근 △충청도서관장 이계만



신달자의 핫살과 바람

시인

긍정의 열매

북촌을 떠난다. '북촌'이라는 집 한 권이 3년의 결과라고 스스로 다독거리며 서운한 마음을 감춘다. 그렇다. 나는 이사를 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제발 그날만은 더위를 견디더라도 비만은 오지 않기를 며칠 전부터 일기에 보에 귀를 열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어두컴컴해지면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살림살이란 필요하지만 마땅으로 끌여낸 모든 것이 숨을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내 약점처럼 비만은 오지 않았다. 혼자 사는 살림들이 꺼내 놓으니 너무 많다는 생각에 아무도 몰래 버리고 싶은 마음을 눌렀다. 여러 갈래 비와 함께 내리는 날이다. 살아간다면 필요한 것들이니 바라보면 측은하기도 하다.

그래서 꺼내 놓은 짐들이 빗마 돌아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넣고 싶은 마음도 누르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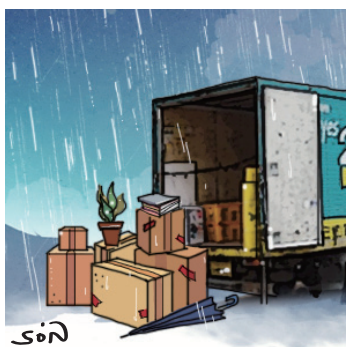
들의 옷이 젖고 내 옷도 젖어가고 있었다. 불편은 점점 심해졌다. 그런데 친구며 후배들이 휴대폰 문자에 축하한다는 글을 계속 올렸다. 비 오는 날 이사를 하면 복이 타지게 들어온다는 것이다. 복이 아니라 돈이 엄청 들어온다고 하니 이사 끝나고 밥이나 사라는 문자도 있었다.

누가 이런 위로(?)의 명언을 만들어 계속 휴대폰을 올리게 하는가. 동네 사람들도 제법 관참은 조각도 '돌로만 보이는 집 덩어리를 바라보며 위로하듯 말했다. "비 내리는 날 이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잖아요." 문자도 많았는데 등을 두드리며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치 대학 두 번 떨어진 사람에게 "더 좋은 일 생길려고..." 하는 것처럼 공색하게 좋은 말 찾기 운동본부 직원 같은 말들을 참 많기도 쏟아냈다. 한국인을 우물거게 보거나 탄식의 원조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무척이나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반가운 임을 만났는데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하는 여인네 마음을 읊었지만 우리나라 고대소설의 주인공들을 보면 시대를 뛰어넘는 강인한 여성성, 아니 인간적 폭탄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 지극히 불편하거나 불행할 때 그리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의 희망 줄을 놓아 버리는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피는 말한다. "우리가 남이가!" 이 말 한마디로 관계를 다잡는다.

한국인들은 고향이 같거나 학연(學緣) 등 연인의 핵심이 촉발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백년지기



(百年知己)로 변하고 숨겨둔 슬픔도 꺼내는 사람들이다. 긍정의 힘은 더 많다. 넘어져 다리를 다쳤으면 팔은 괜찮아 다행이라고 하지 않는가. 팔과 다리를

모두 다치면 목은 괜찮아 다행이라고 하며, 척추를 다치면 머리는 괜찮으니 다행이라고 한다. 이 무서운 긍정의 힘이 바로 한국인의 힘이 아닐까. 낱말 좋은 날 이사를 했으면 문자를 마루기도 했을 것이다.

한국인은 어떤 일을 그르치거나 안 좋아진다고 할 때 정(情)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하는 날 비가 오면 돈이 들어온다든가, 집에 불이 나면 몇 배 불려서 돈이 들어온다든가, 불편을 겪거나 불행할 때 말을 덤으로 바싹 올려 위로하는 긍정의 힘은 놀라운 뿐이다. 나의 이사와 한국의 모든 일이 그야말로 다행으로 전진(前進)했으면 한다. 이삿날 비가 왔으니 나에겐 돈 들어올 일만 남았다. 한국인의 다행의식(多幸意識), 얼마나 아름다운 힘인가. 그 아름다운 열매의 맛은 각자 노력으로 가득 채워가길 바랄 뿐이다. 오늘은 햇살 푸집한 날이다.

正論

이유리

서울예술대 예술경영전공 교수
한국뮤지컬산업연구소 소장

관객과 相生하는 무대

면 상황이든지 집단적으로 몰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됐다. 해외 공연 시장에서는 이미 대세인 이머시브 연극(Immersive Theatre)이 최근 한국 공연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15년 전 그 정체불명의 공연을 굳이 규정하자면 이머시브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관객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주체적으로 시도하고 몰입하고 창조한다. 단 공연 시장은 15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관객 중심이다.

신인류의 탄생은 끝이 없다. 얼마 전까지 '프로슈머(producer+consumer: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가 광고 시장과 기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더니 이제는 '크리슈머'(Creative+Consumer:제품을 재창조하는 생산적인 소비자)의 아이디어와 제품 활용 방식에 기업이 의존하는 추세다. 소비자는 더 이상 기업의 매뉴얼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관리 대상이 아니고 기업에 제품의 새로운 활용성과 마케팅 기법을 알려주는 매출력의 파트너인 것이다.

한 식음업체는 '크리슈머'들이 자사 제품인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짜파구리'라는 신메뉴를 개발한 데 착안해 아예 신제품을 출시했다. 공짜 쿠폰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던 한 '크리슈머'가 창조한 스타벅스 '악마의 음료'는 메뉴에는 없지만 손님들이 찾으면 매장에서 제조해 준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 소비자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품의 질과 종류, 마케팅, 서비스, 유통 방식을 개선해 이익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연 시장의 젊은 예술가들도 '크리슈머'의 존재력을 활용하고 있다. 시대감각을 깨친 젊은 예술가들은 관객을 단지 일방적 소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창작을 완성시키는 창조적 동반자로 재인식한다. 1980년 미국에서 초연된 수사 추리극 '쉬어 매드니스'는 관객들이 배심원이 돼 범인을 지목하기에 따라 결말이 달라진다. 지난해 이 연극이 대학로에 상륙했을 때 관객들은 신선해했다. 적극적으로 연극에 개

입하며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지나해 말에는 관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해 공연을 보는 방법을 숙지하고 대학로 곳곳을 오가며 헤드폰을 끼고 배우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이색적인 연극 '로드 씨어터 대학로'가 공연됐다. 관객들은 공연장을 벗어나 대학로 뒷골목과 주점 등에서 일상과 밀착된 연극을 새롭게 만난 것이다.

요즘 화제인 '씨어터 RPG 1.7' 내일 공연인데 어썩하지는 더 적극적으로 관객을 공연에 끌어들이는 관객은 연극 스태프가 되어 공연장의 분장실과 연습실을 누비며 직접 공연을 만든다. 무대 뒤의 적나라한 공연 제작 과정에 참여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결정한다.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의 경계가 무너지고 관객이 창조자이면서 소비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이머시브 연극은 앞으로 더 많이 시도될 것이다. 우리 공연 시장도 관객과의 상생적 동반에 대해 창조적 재인식이 필요할 때다.

한 컷

이러다가 자칫!



'스몸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과 종이의 합성어입니다. 앞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교통사고, 추락, 의자 등 최근 5년간 스몸비 관련 사고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각성을 느낀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보급률 75%를 자랑하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바빠도 길을 떠날 때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안전에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고이관 기자 photoeran@

온라인 와글와글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관행 깨기 "제발 휴가 때라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퇴근 후 업무지시 관행을 깨고자 정부가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업무 지시가 내려지는 것과 관련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연차금지법을 도입한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퇴근 후 업무 연락금지법'인 '엘

콤리(El Khomri)법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 특성상 퇴근 후 SNS 사용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하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은 "퇴근 후 카톡 보내면서 불이는 말 '미안한데, 미안하면 보내지 마, 제발', '하루빨리 법으로 정해 확실하 규제해라', '제발 휴가 때는 메시지 좀 보내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카드로 보는 세상



서울 도심 속 피서, 한강 수영장 물놀이장만 한 곳이 있을까요?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기에 적격입니다. 한강에는 여의도·난지·독섬·잠원·망원·잠실 수영장 등 6곳과 양화·난지 물놀이장 2곳이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물놀이장마다 규모나 편의시설 등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잠원 수영장, 유수풀이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독섬 수영장 등 각각의 특징들을 알려드립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kyU2xo>

SUPER MILLION HAIR

명품흑채 슈퍼밀리언 헤어

내 안의 젊음을 깨워라!

내 안에 젊음만 깨워진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젊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너무 많습니다. 자신감, 행복, 꿈, 희망.... 혹시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나요? 탈모때문에 내안의 젊음까지 잃지는 마세요!



남녀공용

기본SET
(25g+165ml)후대용SET
(10g+60ml)상담및주문
무료 전화

080-582-0119

自然派 club Hairmind 헤어마인드

<http://hairmind.co.kr>F&O (주)필코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3길 9 (아이템플) 4층무자극 임상실험 완료
DSA-HSPIT001(4)-13008/2

이슈&인물

“전기차·신재생에너지·4차 산업혁명…제주도, 최적의 테스트베드”

.....
‘탄소 없는 섬’ 꿈꾸는 제주
.....

원희룡
제주도지사
대담=신동민 정치팀장

현재 신재생에너지 대체율 12%

2030년까지 100% 충분히 가능

풍력·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로

車 달리고 남는 건 다른 지역에

‘섬·특별자치’ 제주의 조건이

AI·IoT·빅데이터 등 新산업의

다품종 소량 테스트에 적합

투자·인재 유치 적극 지원을

사시 수석합격·3選의원 출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제주도가 낳은 천재’이다. 혹독한 가난에도 1982학년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고, 1992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정치에 입문한 뒤엔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원조 소장파’로서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병국 의원과 ‘남원정’으로 불렸다. 16대부터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설 만큼 패기가 넘쳤으나,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스스로 4선 도전을 포기하고는 정치인으로서 성장의 시간을 가졌다. 2014년 당의 차출로 고향인 제주로 내려가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길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윤리뉴스부 (02)799-6741	사정팀 (02)799-2646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64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12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 ·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의 국가 에너지망 전환 기조를 내세우면서 새삼 주목받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 원희룡(53) 제주도지사이다.

원희룡 지사는 2030년까지 제주를 ‘탄소 없는 섬(카본프리 아일랜드)’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현실화하고자 풍력과 태양광 규모를 늘리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다.

1회 충전으로 제주도 일주 가능

◇ “카본프리 아일랜드 성공 자산… 전기차 역사 새로 쓰고 있다” = 원 지사는 지난달 31일 제주시에 있는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를 통한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의 실현을 자신했다.

그는 “‘탄소 없는 섬’ 정책은 바람과 태양광이 만든 전기로 자동차가 달리고, 남은 전력은 다른 지역으로 수출도 가능케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며 “현재 전기차는 2%, 신재생에너지는 12% 정도 대체됐다. 기술혁신 속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100%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서 처음 해상풍력이 상용화됐고,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센터 설립에 착수했다”며 “지능형 전기차 주차빌딩 구축, 스마트그리드 플랫폼 개발 등도 맥도날드 지점을 보급하듯이 전국에, 세계에 보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탈원전은 핵융합기술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과제도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제주를 통해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온 제주도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이른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인기가 높고 있는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제주도 일주가 가능하고, 충전 인프라도 갖춰진 제주도가 테스트베드로서 제격이라고 원 지사는 소개했다.

원 지사는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해 주고, 렌터카나 택시 등의 전기차 전환 지원 확대를 추진해왔다”며 “올해 6월 기준 제주도에 보급된 전기차 7000대를 훌쩍 넘었고, 연말이면 전국 보급량의 절반가량이 제주도에 모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차를 몰아본 관광객 일부가 불편한 점을 토로하는 데 대해선 “아직은 불편한 점이 당연히 많겠지만, 그러한 불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전기차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태양광·풍력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해보지 못한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재 키워도 해외서 데려가면…

◇ “제주,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안성맞춤” = 원 지사는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술 등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대응에도 제주도가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인했다. 전기차의 예를 들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단으로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달리는 고성능 컴퓨터로 진화 중”이라면서 기술력 시험과 인프라 조성에 제주도가 강점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의 규모가 작은 게 이젠 오히려 장점이 되고 있고, ‘특별자치’라는 점도 각종 규제와 기존 산업의 기득권에서 자유로워서 미래의 새로운 도전에 안성맞춤”이라며 “하다 못해 드론을 마음껏 날리려 해도 제주는 규제를 풀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이라면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드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여러 신(新)에너지, 이 안에서의 빅데이터와 정보처리 기술 등을 봤을 때 제주도는 같은 자원을 투여해서 완성도 높게 실험해볼 수 있는 딱 적당한 규모와 사회적인 여건을 갖춰 테스트베드로 최적”이라며 “다품종 소량 테스트 면에선 제주도가 적지(適地)”라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4차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넣어 각종 규제를 풀고 전 세계적으로 대이동 중인 기술과 자본, 인재를 우리나라에 불러들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제주에서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주는 전기차의 새 역사를 쓰는 등 다른 지역에선 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을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 투자시장, 상품시장에서의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고, 새 혁신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어떻게 더 많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원 지사는 인재의 해외 유출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은 구글이나 테슬라, MS에서 다 스카우트해서 한국에선 구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키워도 다 데려간다”고 개탄했다. 그는 “투자, 기술의 매칭은 매칭할 수 있는 구조 조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로 해결할 수 있다. 국가가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며 “규제가 풀리고 경제주체들 간 서로 협력과 경쟁,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큰 틀의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기술 있는 사람은 자본을 만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전부 미국, 유럽, 중국으로 뺄

려간다”며 “돈과 기술, 인재가 모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한국에서 불들어 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대통령 산하 위원회에서 페이퍼 작업을 한다고 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사드 장기화 각오, 질적 전환 기회로

◇ “헌법에 특별자치도 지위 명시하고 재정·입법권 부여해야”=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수장으로서 할 말이 많았다.

그는 “내년에 개헌할 때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재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移讓)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다른 지역에 40% 정도의 입법 권한을 준다면, 제주도엔 60~70%를 부여한 두 단계 더 앞서서 자치분권 실현

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의 획일적인 재정 통제도 풀어야 한다. 예컨대 카지노 세금은 국가 수준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세금은 면제해 주면서 제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재정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재정 권한을 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전반적인 지방분권의 내용에 관해 제2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협의회 간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제주는 더 높은 단계에서 더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원 지사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임시 추가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의 타격을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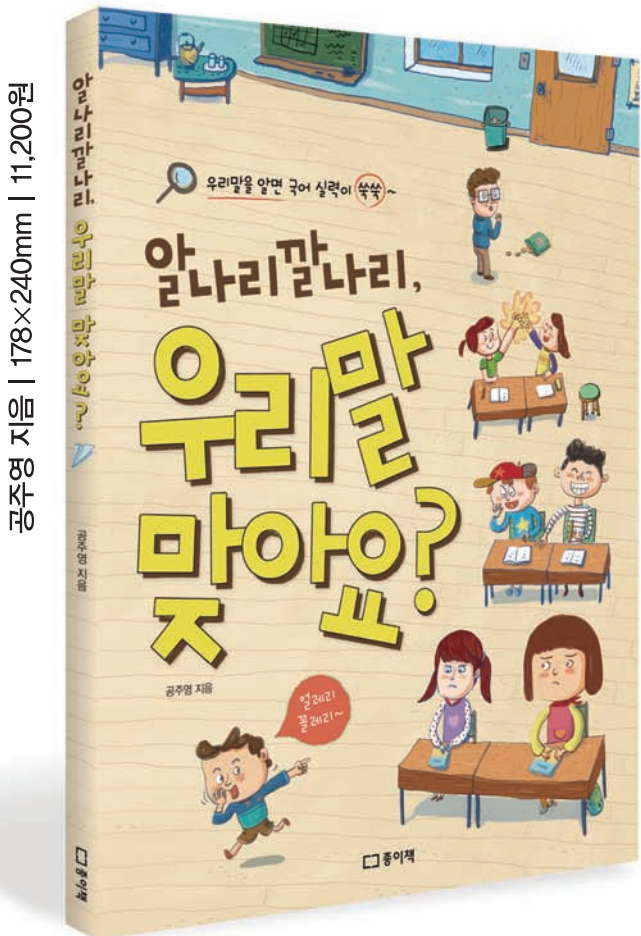
그는 “중국의 사드 제재 장기화는 각오해야 한다”며 “그간 중국의 저가 단체 관광의 폐해가 워낙 컸던 만큼 이젠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목적이나 스포츠 레저, 가족이나 개인의 휴양과 요양, 교육 목적 관광 등으로 바뀌어 한다. 사드 제재로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사실상 끊어져 있는 시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선용(善用)해 제주 관광의 질적인 전환 시기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인으로서 위기에 몰린 보수 재건의 방향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 아이 교육문제 등을 풀고 대다수 서민의 삶을 보장하고 희망을 품게 만들려면 보수도 확실한 자기방안을 가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 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할 순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보수철학의 강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동체가 개인을 다 책임지기보단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를 존중하고, 선의의 경쟁에 의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여 사회 시스템을 운용해 나간다는 면에서 보수철학의 강점이 있다”며 “그러한 방법론과 강점을 살린 국가 운영의 모델을 제시하고 서민 삶의 문제 해결 비전을 확실히 갖고 집권세력 내지는 진보세력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설 원 지사는 “제주의 난개발을 막고, 외부 개발에 의한 도민 삶의 질 저하를 막아 제주가 가진 미래 가치를 더 빛낼 수 있게 하겠다”며 “제2공항 등 인프라를 다지고, 인재와 미래산업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도 본궤도에 올리는 것까지 2기 정부의 목표표 삼겠다”고 말했다.

정리=김미영 기자 bomnal@



세 살 버릇 여든 가듯, 초등학교 국어 실력 평생 간다!
이번 여름방학, 포켓몬 잡으러 go? 내 아이 어휘력 잡으러 go, go!

1~4학년 교과서 수록 단어 포함!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재미있는 우리말!

- 교과서 수록 단어를 포함한 우리말 160여 개 풀이
- 반복 학습을 돕는 <은솔이가 내는 쓱쓱 우리말 퀴즈>
- 자주 써서 오래 기억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말을 써 봐요>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THE ASIAN BANKER®
Best Trade Finance Bank
in South Korea

TRANSACTION BANKING AWARDS 2017

Asian Banker誌 선정 6년 연속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 은행”COOL하게 떠나자!
푸짐한 환전 혜택으로!KB쿨썸머
홀리데이
환전·송금
페스티벌이벤트기간:
2017.6.1(목) ~ 2017.9.30(토)

1 환율 우대에 놀라고!

Liv(리브)와 함께하면 누구든 쉽고, 빠르게
최대 90% 환율우대 혜택!

주요통화 90%: USD, JPY, EUR (외화카드, 모바일지갑 포함)

KB서울역환전센터를 방문하면
최대 90% 환율우대 혜택!

주요통화 90%: USD, JPY, EUR

2 혜택에 반하다!

무료로 여행자보험 가입하고 든든하게 떠나자!

KB영업점에서 건당 미화 500불 상당액 이상(포자선금액 기준)
외화현찰을 사시는 개인고객 중
여행자보험 가입 신청한 경우(서울역환전센터 제외)

KB에서 환전하면 제휴사 할인혜택까지!

서울역 (-) 인천공항 공항철도 할인 (8,000원 → 6,000원)
해외 로밍 - 모비텔레콤 할인
시티, 갤러리아, SM, 엔타스, 롯데부산 면세점 할인

3 경품 행운까지!

KB영업점에서 미화 500불 상당액 이상
환전 및 해외송금한 개인고객 추첨 증정1등: 리브메이트 포인트리 100만점 (1명)
2등: 리브메이트 포인트리 10만점 (10명)
3등: 리브메이트 포인트리 1만점 (300명)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전체서비스 - 이벤트 - Cool Summer Holiday 환전·송금 Festival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벤트 경품은 시장상 동일 금액대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KB국민은행에서 부담합니다.

※Event 2에 대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은 주민등록번호로 환전한 고객 중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되며, 보험사(※KB손해보험)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공범위: 주민등록번호, 고객명, 거래금액, 여행기간, 대상업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Event 3에 대한 추첨은 난수 추출 방식으로 별도 참여 없이 자동응모 처리되며, 1인당 1회만 응모됩니다.

※Event 3에 대한 리브메이트 포인트리는 리브메이트 회원 또는 KB국민카드 회원에게만 적립됩니다. 포인트리는 2017년 10월 20(금)에 일괄 적립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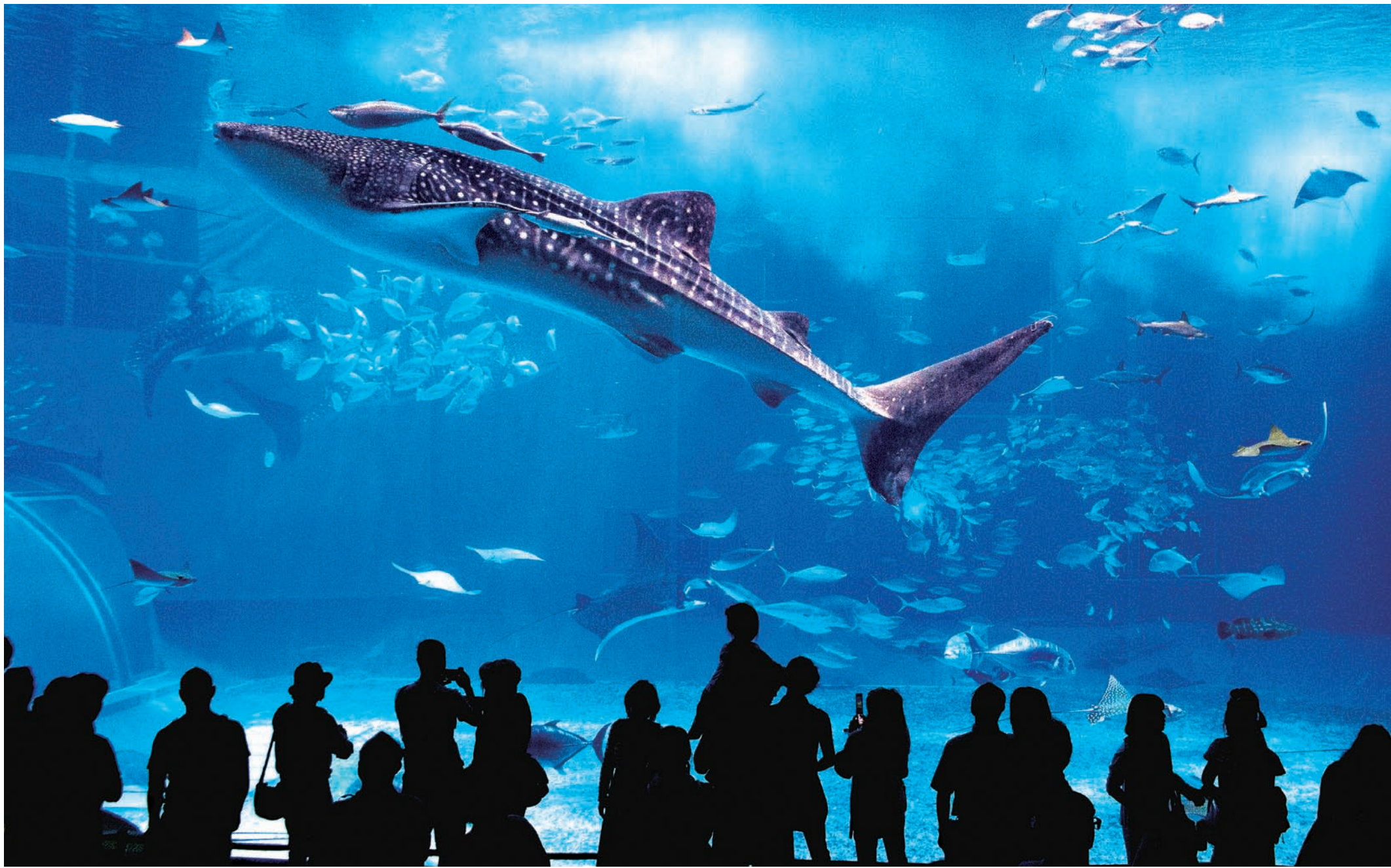
※포인트리 적립확인 및 사용 등은 리브메이트 앱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브메이트 전용 고객센터(☎1644-3311) 또는 리브메이트 홈페이지(www.livmat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0000)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KB스타뱅킹 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카드) 매매, 양도는 불법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사기 예방! 대포통장 근절이 최선입니다.

본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 2017.09.30 까지 |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466호(2017.06.16)

KB 국민은행



인터파크투어는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일본 오키나와를 주말 여행지로 추천한다. 사진은 주라우미 수족관.

사진제공 인터파크투어

휴식·관광 '황금비율' **OK!** 동양의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

주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가장 고민되는 포인트는 휴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과 레저를 즐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에메랄드 빛 바다 위에 떠 있는 산호 섬으로 동양의 하와이라 불리는 오키나와를 선택한다면 이런 고민은 즉시 해결 가능하다. 오키나와는 휴식과 관광을 황금비율로 섞어 놓은 여행지로 손색 없기 때문이다.

최근 호텔스닷컴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여름 휴가지로 가장 많이 검색한 곳으로 오키나와가 제주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현이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일본에서 한참이나 남쪽 아래에 위치한 섬으로 대만과도 매우 가깝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오키나와는 아열대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일년 내내 22도 정도의 평균 기온을 유지한다. 단, 4~10월은 우기이기 때문에 여행 전에 날씨 체크는 필수다.

오키나와 북부지역은 주로 산과 밀림으로 이루어지고 남부는 낮은 구릉지대로 바위가 많은데 주민들은 거의 남부에 살고 있으며 남서부에 현청 소재지 나하가 있다.

인터파크투어는 주말을 이용해 저가항공을 타고 저렴한 가격에 오키나와를 여행할 수 있는 2박 3일 상품을 제안하고 있다. 길지 않은 일정이지만 오키나와 최대 규모 성인 수리성고 테마파크인 오키나와월드, 오키나와에서 가장 변화한 국제거리, 해안 절벽으로 유명한 만좌모와 오키나와 속 작은 미국으로 불리는 아메리칸 빌리지 등 오키나와 여행의 필수 방문지들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오키나와 최대 규모의 성인 수리성은

제주도 이어 여름휴가지 검색 2위 아름다운 해안과 테마파크 갖춰 '작은 미국' 아메리칸 빌리지 쇼핑 류큐 왕조 문화 숨쉬는 수리성고



오키나와 이시가키 카비라 베이(위)와 코키리 형상의 절벽인 만좌모 전경. 사진제공 인터파크투어

600여 년 전 이곳에 존재했던 류큐 왕국의 성이다. 중국과 일본의 건축양식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이곳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기도 하다. 14세기에 세워진 수리성은 오키나와 전쟁으로 인해 완

전히 파괴됐지만 1992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오키나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수리성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나하의 경치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매주 무료 공연도 펼쳐진다.

오키나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테마파크 오키나와월드는 오키나와의 자연과 문화는 물론 역사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대 테마파크다.

동양의 하와이라 불릴 정도로 따뜻한 기후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휴양지로 인기가 높다. 이곳에는 류큐 왕조의 거리부터 민가, 공원 등 당시를 재현한 풍경이 가득하다. 또한 오키나와 전통 공예 공방이 있어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특히 일본에서 두 번째로 긴 종유석 동굴인 쿄쿠센도와 전통민속공연이 인기가 많다.

오키나와에서 가장 변화한 곳인 국제거리는 오키나와 현청부터 우이레일 마키시역까지의 길을 일컫는 말로, 약 1.6km의 직선도로다. 도로를 따라 다양한 쇼핑물과 레스토랑, 호텔 등이 자리하고 있어 쇼핑에서부터 식사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나하 최고의 변화가다. 전후의 폐허로부터 빠르게 재건돼 현재의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기적의 마을'로도 불린다. 화려한 건물의 건물에서부터 아기자기한 기념품숍까지 구경할 수 있다.

오키나와에서 손꼽히는 해안 명승지 만좌모는 코끼리 형상을 띠고 있는 절벽으로 더욱 유명해진 관광명소다. 과거 류큐왕국의 쇼케이왕이 절벽 위에 넓게 펼쳐진 초원을 바라보며 '만명이 앉을 수 있겠다'라고 감탄해 '만좌모(万座毛)'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 국립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초원 주변에 있는 식물군락은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다. 거친 파도가 만들어낸 독특한 해안지형은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주며,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주변경관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오키나와 속 작은 미국으로 불리는 '아메리칸 빌리지'는 미국 서부 해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오키나와 중부 바닷가의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에 조성돼 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시포트 빌리지를 모델로 삼아 쇼핑과 문화, 낭만이 넘치는 북문화 쇼핑타운이다. 각종 상점과 레스토랑, 카페, 오락실, 볼링장 등이 즐비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아메리칸 빌리지의 랜드마크인 높이 60m의 대관람차에 오르면 오키나와 중부의 거리 풍경과 동중국해 바다까지 이어지는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일본 속의 미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영화 '여인의 향기'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근처에 야구장과 선셋비치가 있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숙박으로는 카후 리조트 후차쿠 콘도 호텔을 추천할 만하다. 이곳은 나하 국제공항에서 차로 50분 거리, 아메리칸 빌리지가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수리성 등도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어 오키나와를 관광하기에 최적의 위치라 할 수 있다. 럭셔리한 객실 및 시설과 더불어 실외 풀 등도 이용할 수 있으며 키즈풀, 뷰티살롱, 카페도 갖춰져 있어 가족 여행객들에게도 안성맞춤이다.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 숙소를 찾는 이들에게는 오키나와 그랑메르 리조트를 추천한다. 그랑메르 리조트는 6종류의 다양한 객실 타입으로 이루어진 302개의 객실 모두 오션뷰이며 객실마다 발코니와 야외 파티오 체어를 준비해 두고 있어 명상과 휴식을 취하기 좋다. 다다미 방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레스토랑에서는 오키나와 지방 요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지역 특색을 만끽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에게 만족감을 더 해준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날씨와 생활

스포티 샌들

쿨비즈룩에는 '레드벨벳' 샌들

과하지 않은 디자인에 편안한 착용감도 한몫

폭폭 찌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여름 샌들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올 여름은 신었을 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스포티 샌들이 각광받고 있다.

폭신한 밑창에 넓은 스트랩으로 발등과 발목을 감싸는 스포티 샌들의 인기 요인은 착용감이 편안하지만 각선미는 물론 스타일까지 살릴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에슬레저(Athleisure)' 트렌드 영향으로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직장 내 복장이 자유로워지면서 쿨비즈룩에 스포티 샌들을 함께 매치해도 부담스럽지 않아 캐주얼한 직장인 룩에 함께 연출하기 좋은 세련된 디자인의 스포티 샌들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는 점도 열풍에 한몫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스포티 샌들 스타일의 누오보 카리노5.5는 출시 두 달 만에 초기 입고 물량의 70%가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화보에서 레드벨벳의 아이린이가 신고 나오면서 아이린 샌들로 불리며 20대 여성들에게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ABC마트가 판매 중인 누오보의 카리노5.5는 밴드 스트랩으로 발등을 안정감 있게 감싸주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스트랩에 준 배색 포인트를 통해 세련된 느낌을 잘 살렸으며 5.5cm의 안정감 있는 굽은 카툰이 효과까지 가능하다. 미니 원피스나 반바지와 함께 매치하면 편안하면서도 발랄한 데일리룩을 완성할 수 있다.

누오보의 싸이클론6은 메탈릭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준 샌들로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블랙과 화이트 컬러를 믹스한 솔 디자인으로 캐주얼룩은 물론 페미닌룩에도 잘 어울린다. 또한 일명 '찍찍이'로 불리는 벨크로 디테일이 더해져 언제 어디서나 신고 벗기 편리하다.

블랙마틴잇봉의 어첨은 투톤 컬러의 청량감 있는 매시 소재를 적용했으며 5cm 높이의 밑창으로 쿠션감과 편안한 착화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뒤쪽 벨크로 어첨 스트랩으로 발 형태에 맞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화이트, 블랙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임석훈 ABC마트 마케팅 팀장은 "올 여름 에슬레저 트렌드로 인해 자연스럽고 간편한 패션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편안한 착화감이 강점인 스포티 샌들이 인기"라며 "편안함, 스타일, 각선미를 동시에 살려줘 특히 20대 여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누오보의 싸이클론6(위)과 레드벨벳 아이린 화보 컷.

상품의 속살

CJ '백설 만능요리 파기름'

혼밥족의 볶음 요리 풍미 가득 '마법기름'

1인 가구용 220ml 소용량 출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치솟으면서 소용량 식품로품이 붐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한 끼를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도시락과 간편식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요리를 위한 간편야채, 소스 등 소용량 식재료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소용량 시장에 주목하면서 식용유도 1인 가구에 맞춘 제품을 내놓았다. '백설 만능요리 파기름'(사진 왼쪽)과 '백설 만능요리 마늘



생강기름(사진 오른쪽)'은 기존 콩기름, 카놀라유 등과 달리 볶는 과정에서 음식에 맛과 향을 더해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식용유다. 기존의 식용유가 900ml인데 비해 이 제품은 220ml 소용량이다. '백설 만능요리 파기름'과 '백설 만능요리 마늘생강기름'은 어느 볶음요리에 사용해도 맛과 풍미를 살려주기 때문에 요리 실력이 부족한 신혼부부, 혼자 요리를 즐기는 혼밥족 등이 주 타깃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는 방송(쿡방)에서 특히 소비자의 관심이 높다"며 "마늘과 파기름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만능기름'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백설 만능요리 파기름'은 파 특유의 맛과 향이

살아있어 볶음밥 등 모든 볶음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마늘과 생강의 은은한 매운맛과 향으로 고기나 해물요리의 잡내와 비린내를 잡을 수 있다. 불고기 등 고기요리뿐만 아니라 해산물 요리가 들어가는 봉골채 파스타, 해물 순두부찌개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유혜연 CJ제일제당 백설 식용유 담당 과장은 "최근 1~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편의성이 강조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식용유 시장도 이들 소비층을 겨냥한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며 "시장 트렌드에 맞게 추가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

“노는 것처럼 촬영...덕분에 케미 폭발”

영화 ‘청년경찰’ 함께한 강하늘

많은 사람들이 배우 강하늘의 얼굴에서 청춘을 본다. tvN ‘미생’, 영화 ‘췌시봉’과 ‘동주’가 그러했듯 그는 가장 실감나는 청춘을 표현할 줄 아는 배우다. 그런 강하늘이 영화 ‘청년경찰’의 과짜 경찰대생 ‘희열’ 역으로 또 한번 이 시대 젊은이들의 초상을 그렸다.

강하늘이 ‘청년경찰’의 관전포인트로 꼽은 것 중 하나는 박서준과의 ‘케미’였다. 영화를 찍는다고보다는 ‘노는’ 느낌이 강했다는 촬영 현장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보통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을 ‘핑퐁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서준이 형과 한 번도 연습을 안 했어요. 촬영 당일날 맞춰서 보면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넣고 했죠.”

강하늘은 ‘청년경찰’ 대본을 받은 직후 그 자리에서 전부 읽었다고 고백했다.

단순히 웃긴 대사, 웃긴 단어로 점철돼 있지 않으며 유티 있고 타이밍 좋은 대사가 있는 대본이었다는 것이 강하늘의 평가.

극 중 강하늘의 희열과 박서준의 기준은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이 많은 캐릭터들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가끔은 서로의 역할을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법도 했다.

“제가 계속 남자들이랑 작품을 찍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일단 ‘청년경찰’을 읽었을 때 가장 좋았던 건, 두 주인공의 성격이 처음에는 정말 다르게 나오다가 중간을 맞춰가다 보니 마치 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연기하는 희열도, 박서준이 하는 기준도 지금과는 달랐겠죠. 그러나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강하늘은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 전문특기병에 지원, 9월 11일 입대를 앞뒀다. MC승무헌병으로 복무하게 된 그는 일부러 힘든 복무처에 자원하게 된 배경을 묻자 ‘청춘의 아이콘’다운 답을 내놨다.

“안 힘든 데가 어딴겠어요. 굳이 힘든 곳을 가지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어차피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은 곳을 택했죠. 2년 동안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대화를 나눌수록 그에게 붙은 ‘미담제조기’라는 별명이 체감됐다. 강하늘이 지금의 중심 잡힌 청년으로 성장한 데는 어릴 적부터 ‘하고 싶은 것만 해라’고 해주셨던 부모님의 덕이 컸다고. 그렇지만 이 같은 수식은 가끔 강하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을 것이다.

“별명 때문에 ‘이미지 관리 하면서 살기 힘들겠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어렵게 산다고, 저도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술도 진탕 마시고 욕도 하죠. 좋은 사람으로 있기 위해 부담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 언정,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굴 찌푸리는 일은 없게 하고 싶습니다.”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



과짜 경찰대생 ‘희열’ 역할
박서준과의 ‘케미’ 관전포인트

내달 군입대... 가고 싶던 헌병대 지원
미담제조기? 술도 먹고 욕도 하죠

무모한 경찰대생 ‘기준’ 맡아
죄살 표현하러 라면 자주 먹어
‘군함도’ ‘택시운전사’와 대결?
현실적인 청춘 표현... 경쟁력 있죠

“이제 서른 살...스무 살처럼 보이나요?”

박서준

우연인지 운명인지, 박서준은 데뷔 이래 트렌디 드라마의 가장 맛깔나는 배역들만을 쏙쏙 골라 맡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KBS2 ‘쌈, 마이웨이’를 통해 경종 도약한 그는 영화 ‘청년경찰’의 무모한 경찰대생 ‘기준’으로 분해 스크린을 장악하는 배우로서의 감당도 보여줬다.

공교롭게도 ‘쌈, 마이웨이’와 ‘청년경찰’ 모두 청춘의 한복판에 박서준을 세웠다. 후자는 그 흔한 멜로 없이 코믹한 타지로 그린 ‘브로맨스’를 내놔지만, 의외로 사회 이후 반응은 뜨거웠다.

“놀랍죠. 이렇게까지 좋은 반응을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출연한 작품들을 돌아보면 전부 제 삶과 맞닿아 있더라고요. ‘청년경찰’도 대학 시절 경험 덕에 접근하기 쉬웠죠. 다만 서른 살인 제가 스무 살 배역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그래도 지금 아니면 언제 스무 살 연기를 하겠어요. 죄살을 표현하려고 수시로 라면을 먹어 부기를 만들었죠.”

‘청년경찰’의 기준은 경찰대학교에 진학한 이유를 “학비가 공짜라서”라고 말한다. 자신을 경찰대생이라 소개하면 “도 못 버는 것 왜 하나”는 핀잔을 듣기 일쑤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경찰은 기준의 꿈이 된다.

“기준과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였는데, 입학 후 그 목표가 사라지니 방향하게 됐어요. 연기자가 되려고 대학에 왔는데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고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전역하기 직전을 떠올려 보면, 정말 의욕이 넘쳤거든요. 뭘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와 보니 하기는 뭘... (웃음) 오디션 기회를 잡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계속 떨어지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보니 혼란스럽더라고요. 목표의식이 사라지니 잠 생각만 많아졌죠. 그래서 하루 스케줄을 빼곡하게 짜서 1년을 보냈죠. 무조건 시간을 잘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전철로 이동할 때도 사람들을 관찰하고... 지금 생각하면 제 자산이 된 것 같아요.”

박서준의 청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꾸다가 격투기 선수로 전향해 링 위에서 빛을 발한 ‘쌈, 마이웨이’의 고동만이 겹쳐 보였다. 혼란의 시기 자신 안으로 침잠하기보다 외부의 작은 자극도 소중히 했던 그의 집념은 ‘청년경찰’의 캐릭터 속에도 녹아났다.

여름 성수기 최악체로 평가됐던 ‘청년경찰’은 메이저 배급사의 텐트폴 무비 ‘군함도’, ‘택시운전사’와 동 시기에 극장에 걸린다. 주연 배우로서 부담감이 없을 리 만무했다.

“다양한 콘텐츠와 장르들이 생겼잖아요. ‘청년경찰’은 두 작품과 다른 장르여서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관객들이 우리 영화에 허락해 주신 109분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

外部人の 시선으로 접근한 ‘5·18 광주’

영화 ‘택시운전사’

외국인 기자·평범한 소시민...
광주 참상 목격 사명감·생존 갈등
가해자들 단순한 뿔으로만 그려
사실 넘어선 상상력은 아쉬워



현대사를 스크린에 옮기는 과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시대를 통과한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영화적 상상력’은 여러모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물며 그 역사가 비극이라면, 게다가 그 비극이 아직 여물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영화는 역사 앞에서 더 크게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다. 5·18이라는, 여전히 괄호로 남겨진 그 날을 다뤄야 하는 ‘택시운전사’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이 딜레마를 장훈 감독은 ‘두 외부인의 시선’을 통해 돌파하려 한다. 한 사람은 ‘진실을 알리려는 기자 정선’이 투철한 파란 눈의 외국인. 또 한 명은 당장의 ‘먹고사니즘’이 중요한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이다. 영화는 광주와 전혀 무관한 두 사람을 그날의 역사로 실어 나

른다. 효과적인 접근이다. 캐릭터들이 지닌 상황과 성격은, 역사라는 무거운 판단에서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주는 통로가 된다. 게다가 평범한 소시민 만성을 연기한 배우가 이를 자체가 브랜드인 송강호다. 파란 눈의 기자 피터는 로만 폴란스키의 ‘피아니스트’(2002)에서 이미 역사의 딜레마와 맞섰던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이다. 이 이야기는 무려, 실화다.

초반부는 전제가 많이 더디다. 택시라는 공간을 이용한 에피소드가 납작이 인상도 있고, 만섭과 딸의 관계 역시 전형적인 수준에서 그려진다. 신과 신 사이의 편집 리듬도 그리 잘지다 할 수 없다. 더딘 호흡의 영화는 광주까지 택시를 태워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피터의 제안을 만섭이 받아들이면서 속

도를 내기 시작한다. 택시가 광주에 도착한 순간부터는, 역사 그 자체가 주는 파고가 극을 압도한다. 무장한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할 때에는 스크린 너머의 상상력이 끼어들며 몸을 고통스럽게 한다. 삽시간에 지옥으로 변해 버린 그날의 광주 앞에서 휴지는 필수다.

그러나 영화가 그 이상으로 전진했는 가에는 여전히 물을 품게 된다. 그날의 비극을 재현하는 것에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만, 그날의 가해자들에 대해 영화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광주 시민을 탄압하는 사복조장(최귀화)을 흡사 ‘터미네이터’ T1000을 연상케 하는 ‘악의 화신’으로 그려낸 것 또한 너무 손쉬운 접근처럼 보여 아쉽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송강호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고 있다.

‘택시운전사’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불러냈다는 점에서 분명 미덕이 있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화려한 휴가’ ‘26년’ 등의 영화들이 이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이상을 보여주길 바랐던 것도 사실이다. ‘택시운전사’는 5·18을 깊게 그려내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작품인 셈이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다시 온 사드 쇼크... 영화 성수기에도 엔터株 냉랭

CJ E&M ‘군함도’ 개봉 후 오히려 6~7% 하락
‘택시운전사’ 내세운 쇼박스 0.47% 상승에 그쳐
증권가 “작품 흥행 단기 이슈... 좀 더 지켜봐야”

사드가 또다시 엔터 업계에 덮쳤다.

7월, 휴가 시즌과 영화 성수기가 시작됐다. 그렇지만 엔터 업종 상승세는 지지부진하다. CJ E&M 주가는 영화 ‘군함도’ 개봉 이후 내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7월 25일 종가 7만8400원이던 주식은 2일 7만3700원으로 6~7% 하락했다. 쇼박스도 2일 ‘택시운전사’ 개봉과 함께 52주 신고가(7690원)를 경신했지만, 종가는 0.47% 오른 6390원에 그쳤다. YG엔터테인먼트도 지속적인 하락세로 1일 3만 원대가 무너진 이후에도 하향 곡선은 이어지고 있고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멤버들이 전역하면서 활력을 띤 SM엔터테인먼트 역시 7월 31일부터 하락세다. 엑소의 해외 시장 인기, 소녀시대 컴백 소식도 떨어지기 시작한 주가 방향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엔터 관련주의 흥행과 별개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것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꼽히고 있다. 콘텐츠 각각의 호불호로 인한 논란이 불안감을 자극하

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한 우려감이 짙고 있다.

북한이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사드 추가 배치가 가시화된 3일엔 엔터주들의 하락세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우리의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한국 콘텐츠 방영, 제작 및 한국 연예인들의 출연을 막아 엔터 사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발표가 있는 직후 엔터주로 불리는 오락 문화 업종 주가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엔터주들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대신증권 김희재 연구원은 “3분기엔 국내 메이저 배급사들의 텐트폴 작품



개봉에 따른 성수기 효과에 신규 직영점들의 영업 레퍼리지 또한 본격 발생 예정이기 때문에 꾸준히 주목해야 한다”면서 “작품 흥행에 따른 추가 변동성은 단기성 이슈”라고 강조했다.

연예 기획사 역시 중국 외 일본 등의 투어 활동에 주목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SM TOWN’이란 브랜드로 꾸준히 해외 투어를 펼치고 있고, YG엔터테인먼트 역시 박봉 탑이 군대에 있지만 멤버 개개인들의 투어가 진행 중이다.

대신증권 정연우 연구원은 “중국 사드 이슈가 기존 핵심 투자 포인트였던 중국 매출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중국 음반 매출은 유지되고 있다”며 “외부 변수 움직임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소연 기자 suet123@

소녀, 그들만의 世上을 열다



올해 데뷔 10주년 맞는 소녀 시대

소녀, 시대. 걸그룹 소녀시대의 팀명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실로 선언적이다. 시대란 시간의 퇴적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 전후(前後) 세대와 구분되는 동시에 같은 세대와 널리 공유될 수 있는 특징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대'라는 호칭을 허락한다. 그러니까 소녀시대의 탄생은 소녀들의 시대를 열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겠다는 선언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녀시대가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는다. 7월에는 이것을 기념해 여섯 번째 정규음반 '홀리데이 나이트(Holiday Night)'를 발매한다. 음원은 4일 오후 6시에 공개되며, 5일 열리는 팬미팅에서 신곡 무대를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10년 동안 활동한 걸그룹, 더욱이 활동 기간의 대부분을 '톱' 자리에서 보낸 걸그룹은 한국 대중 음악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보이그룹에 비해 팬덤의 응집력과 지구력이 약한 까닭에 걸그룹의 수명은 길지 못하다.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은 가장 최근에 데뷔한 걸그룹으로 교체되고, 걸그룹의 연차는 그들의 커리어가 아닌 나이 먹음의 증거로 취급되기 일쑤다. 오랜 시간 걸그룹의 정체성은 그들의 젊음이나 콘셉트로 완성되어 왔다. 걸그룹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소녀시대의 10주년은 더욱 의미 있다. '소녀'

이달 7일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 발매 데뷔 후 줄곧 한국 대중 음악사 중심 지켜 꿈꾸는 소녀의 얼굴 그린 '다시 만난 세계' 홀로서기 시작한 '캐치 미 이프 유 캔'까지 소녀 그 이상의 소녀...걸그룹 새 길 열어

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탓에 데뷔 초부터 나이와 관련된 별의별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했던 그들은, 그러나 멤버 전원이 20대 후반에 접어들어 지금 누구에게서도 '소녀'라는 호칭 때문에 '태클'을 받지 않는다. 팀명 '소녀시대'는 소녀성에 대한 상징을 넘어 하나의 고유명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소녀시대가 된 것이다.

이것은 어떤 순간의 어떤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를 통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소녀의 얼굴을 그려내고, "꽃대 놓던 내가 오빠를 사랑"("오")한다고 고백하던 시절을 지난 순간 '소녀성'을 내세우는 것이 더 이상의 경쟁력을 보장해주지 못하던 순간의 선택.

그것은 '더 보이즈(The Boys)'였고, '미스터 미스터(Mr. Mr.)'였으며,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이었다. '더 보이즈'에서 소녀시대는 '오빠'가 아닌 남자들에게 "가슴을 펴 봐라"고 외치고 '미스터 미스터'에서는 선택받은 소녀가 되는 대신 "너 Mr. 나를 빛내줄 선택받은 자"라고 말한다. 이성을 도발하는 내용처럼 보이는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결국 타인을 지운 화자의 자립으로 수렴한다.

20대 후반, 활동 7년 차를 넘긴 걸그룹의 미래에 대해 누구도 선투를 제시해 주지 못했을 때 소녀시대는 자신의 길을 개척해 그것을 '10주년'이라는 지점까지 연장시켰다.

소녀의 얼굴을, 소녀의 무해함을 내세우지 않아도 소녀시대는 소녀시대로 우뚝 서 있다. 나이와 외모에 많은 것을 기대하려했던 걸그룹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직 자신으로서 정체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소녀시대가 10주년을 향해 달려가던 최근 몇 년 간 걸그룹 여자친구로 대표되는 '포스트 소녀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10년 뒤, 과연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소녀시대처럼 남아 있을까.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많을 것이다. 소녀시대로 인해 열린 걸그룹의 새로운 시대 덕분에.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제공 SM엔터테인먼트

'지' 열풍·제시카 탈퇴...

'소시'에게 생긴 7가지 사건들



‘소녀시대’를 탈퇴한 제시카.

걸그룹 소녀시대에게도 소녀이던 시절이 있다. 소녀 시대에게도 처음은 있었다. 수많은 첫 기록들을 만들고 다시 그것들을 경신하면서 소녀시대는 성장했다. 10년 동안 소녀시대가 마주했던 강렬한 일곱 가지 사건들. 그 안에 K팝 걸그룹의 역사가 함께 담겨 있다.

#2007.08.05 소녀시대 데뷔

동 세대 최고 인기의 아이돌 그룹을 배출해낸 SM엔터테인먼트가 9인조 걸그룹을 론칭한다는 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는 발표 당시 J팝에 대한 노골적인 레퍼런스가 읽힌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서정과 낭만으로 가득한 아이돌 팝의 정수로 재평가받는다.

#2007.10.11 첫 음악방송 1위

활동을 시작한 지 약 2개월 만에 소녀시대는 Mnet '엠 카운트다운'에서 처음으로 음악 방송 1위에 올랐다. 이후 소녀시대는 전 타이틀 곡 음악방송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2015년에는 '라이온 하트(Lion Heart)'로 100번째 음악방송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2009.01.05 '지(Gee)' 열풍의 시작

소녀시대가 2009년 내놓은 '지'는 글자 그대로 혁명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후렴구 가사 '지'를 무려 52회 반복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중독성을 유발, '후크송'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소녀시대가 '지' 뮤직비디오에서 입고 나온 컬러 스카니진과 짧은 티셔츠 패션은 여성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2010.09.08 일본 데뷔

'지'의 폭발적인 인기로 국내에서 톱 자리를 굳힌 소녀시대는 활동 무대를 일본으로 넓혔다. 2010년 9월 일본 데뷔 싱글 '지니(Ginie)' 발표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는 물론 미국, 유럽, 남미 지역까지 진출했다.

#2014.01.01 첫 공개 열애

윤아와 가수 이승기가 교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데뷔 7년 만의 첫 공개 열애였다. 이후 수영, 유리, 태연, 티파니 등이 공개 연애를 한 바 있으며, 이들의 열애 및 결별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연애시대' '결별시대' 등의 꼬리표가 따라붙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2014.09.30 첫 멤버 탈퇴

제시카가 팀을 탈퇴했다. 당시 제시카는 SNS를 통해 회사로부터 소녀시대를 나가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폭로했고,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제시카가 중대한 의사를 먼저 밝혔으며, 제시카의 사업 시작 등으로 인해 탈퇴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7.08.05 데뷔 10주년

그리고, 10주년이다. 소녀시대는 7일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여섯 번째 정규음반 '홀리데이 나이트(Holiday Night)'를 발표하고 2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다. 짧은 수명이 숙명처럼 여겨지는 걸그룹 시장에서, 10년 동안 톱의 자리를 유지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녀시대의 존재는 유의미하다. '0'으로 다시 돌아가 소녀시대가 새 시작을 준비한다.

이은호 기자 wild37@

'외식재벌' 백종원, 길거리 푸드트럭에 성공비법...“함께 살아야쥬~”

SBS '백종원의 3대천왕'→'푸드트럭' 재탄생
백종원이 1대 1 멘토링 통해 장사 노하우 전수
영세 자영업자와 '상생' 시청자 마음 사로잡아
2회 시청률 6.7%까지 오르며 '뜨거운 반응'

'백종원의 3대천왕'이 '푸드트럭'이라는 새 브랜드로 재탄생됐다. 방송 3주 차에 들어선 현재, '푸드트럭'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7월 21일 개편 후 첫 방송을 선보인 SBS '백종원의 푸드트럭'(이하 푸드트럭)은 '식문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모토로 백종원이 푸드트럭을 통해 창업과 장사의 비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백종원은 개편된 '푸드트럭'의 첫 도전지로 강남역 '푸드트럭 존' 중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9·10번 출구 앞을 선정했다. 장사 활성화를 위해 기존 푸드트럭 운영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기존의 문제점을



SBS '백종원의 푸드트럭'은 외식업계 큰손으로 꼽히는 백종원이 푸드트럭 운영자들에게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사진제공 SBS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수치만으로도 개편은 합격점이다.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4%대에 머무르던 시청률이 개편 첫 회부터 5.6%를 기록했고 2회는 6.7%까지 치솟았다. 2049시청률 또한 수도권 기준 4.2%를 나타내며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다.

확실히, 단순 먹방과 그 팀을 알려주던 '3대천왕'과 다르게 '푸드트럭'은 크게 진화한 모습을 보여준다. 백종원의 사업가적 면모와 백종원의 1대 1 멘토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푸드트럭 운영자들의 변화 모습이 어우러지며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파산 신청을 한 배우 이훈이 '푸드트럭'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모습 또한 흥미를 더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상생'이 있다. 수십여 가지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외식업계 큰손으로 꼽히는 백종원이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사업가 마인드를 토대로 재공하는 모습은 공익성을 충족시키며 안방 시청자들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여기에, 최근 예능 트렌드로 떠오른 관찰 코드가 더해지며 보는 재미를 배가했다. 이에 제작진은 "푸드트럭은 관

찰이라는 장치가 공익을 가미한 새로운 '공익예능'을 표방한다. 어떤 촬영 날은 카메라 22대를 동원할 정도로 관찰을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백종원의 솔루션이 가미되며 변화가 실제로 이뤄진다. 그 과정을 찍는 것은 우리 프로그램이 유일할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어 '사업가' '백대표' 모습도 시청자들에게 큰 어필을 한 것 같다. 백종원도 자신의 전공 분야에 임하는 만큼 의욕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면서 "푸드트럭이 특히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트렌드를 제시하고, 그 토대가 잘 다져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MC 김성주 또한 이 같은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성주는 "푸드트럭은 재미와 함께 의미 있는 메시지도 녹아 있다. 사회 참여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서 "우리 사회에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익을 추구하는 예능 포맷과 백종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도전자들이 어우러지며 '푸드트럭'은 순항 중이다. 백종원이 직접 보여주는 상생이 곧 '푸드트럭'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yeye@

LPGA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PGA 월드 골프 챔피언십

열대야 날려버릴 ‘특급골퍼 샷대결’



왼쪽부터 유소연·렉시 톰슨·아리아 주타누간. 사진제공 LPGA

골프 마니아들은 이번주에도 날밤을 새워야 할 것 같다. 초저녁부터 여자 메이저대회를 보다가 끝나자마자 초특급 스타들의 명품샷을 감상해야 한다.

대회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네번째 메이저대회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여자오픈(RWBO)과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이다.

◇한국돌풍 이어간다… 브리티시 여자오픈 = 한국선수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다시 메이저대회 우승을 노린다. 무대는 3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킹스반스 골프 클럽 링크스 코스(파72·6697야드)에서 개막한 LPGA투어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총상금 325만 달러).

관심사는 4가지다. 1.한국선수들이 4주 연속 우승할 것인가. 2.박성현(24·KEB하나금융그룹)과 유소연(27·메디힐)의 메이저 2승을 누가 먼저 달성할 것인가. 3.이마항이 2주 연속 우승으로 다승자에 합류할 것인가. 4.김인경(29·한화)과 유소연 중 누가 먼저 3승을 올릴 것인가 등이다.

유소연은 메이저대회 ANA 인스피레이션과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김인경과 다승자에 올라 있다.

박성현·유소연 메이저 2승? 코리안남자 4주 연속 우승컵? 스피스-매킬로이-데이, 1·2R 같은組 동반출격 ‘홍행예약’

‘루키’ 박성현은 데뷔전인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대회는 한국선수들과 인연이 깊다. 2001년 메이저 대회로 승격된 뒤 한국 선수는 모두 5번(2001년 박세리, 2005년 장정, 2008·2012년 신지애, 2015년 박인비)이나 우승했다.

2015년 15승을 거두며 최다승을 거둔 바 있는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21개 대회에서 11승을 합작해 역대 최다 우승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화려한 한국 선수들에게 도전하는 외국 선수들의 라인업도 화려하다. 지난해 우승자인 아리아 주타누간(태국)을 비롯해 역대 우승자들이 대거 출전한다. LPGA투어 베테랑으로 자리 잡은 캐리 웨(호주·2002년), 청야니(대만·2010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2013년), 모 마틴(미국·2014년) 등이 출전해 한국 선수들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

JTBC골프는 1라운드에는 3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전 2시 15분까지, 2라운드는 4일 오후 6시 45분부터 5일 오전 2시 15분까지, 3라운드는 5일 오후 7시 45분부터 6일 오전 3시 15분까지, 최

종라운드는 6일 오후 8시 15분부터 7일 오전 3시 45분까지 생중계한다.

◇스피스-매킬로이-데이, 톱스타 한조에서 빅뱅 = ‘홍행몰이’를 위해 스타들을 한조에 묶으면 어떻게 될까.

모두 잘 칠 확률은 극히 드물다. 모두가 망가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3명 중 1·2명은 반드시 무너진다. 톱스들을 한조에 편성해서 모두 컷오프된 경우도 있다. 기량이 비슷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대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번에도 대박을 위해 특급 선수들을 한조로 편성했다.

조니 스피스(미국)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그리고 제이슨 데이(호주)다. 무대는 메이저급 대회인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총상금 975만 달러)이다. 이들은 1, 2라운드에서 동반플레이한다.

2일(한국시간) PGA 투어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회 조 편성을 보면 세 선수는 3일 오후 9시 10분 미국 오하이오 애크런의 파이어스톤 컨트리클럽(파70·7400야드) 10번 홀에서 1라운드

를 시작했다.

2라운드도 같은 구성으로 4일 오후 10시 10분 1번 홀에서 티오프한다.

메이저대회인 디 오픈을 포함해 올해 3승을 거둔 스피스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세계골프랭킹 1위인 더스틴 존슨(미국)은 US오픈 우승자 브룩스 켈카(미국), 세계랭킹 3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와 한조에서 플레이한다. 올해 마스터스 챔피언 세리히오 가르시아(스페인)는 리키 파울러, 맷 쿼치(이상 미국)와 함께 1, 2라운드에 서 격돌한다.

한국의 기대주 김시우(21·CJ대한통운)는 라이언 무어(미국), 폴 케이시(잉글랜드)와 함께 플레이하고, ‘노마드 전사’ 왕정훈(22·CSE)은 웨슬리 브라이언(미국), 로스 피셔(잉글랜드)와 1, 2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월드골프챔피언십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사무국이 아닌 국제프로골프투어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다. 국제프로골프투어연맹은 1999년 미국의 PGA와 유럽, 일본, 호주, 그리고 남아공 등 5개 프로골프투어가 세계적인 골프대회 창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골프단체이다. SBS골프는 4일 오전 4시부터 4일간 생중계한다.

안성천 골프대기자 golfahn58@

‘블라인드 홀’에 선 국내 골프장 체질개선 ‘부활샷’ 날리려면…

이기동의
골프장 경영학

① 연재를 시작하며

◇앞이 안 보이는 국내 골프장들=인전공향 국제업무지역(IBC-I)에 조성될 18홀 대중골프장 개발에 10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냈다고 한다. 골프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 규모 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결코 국내 골프장 시장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다. 골프장 시장은 여전히 레드오션이다. 국내 골프장 사업은 ‘앞이 안 보이는’ 블라인드 홀에 선 골퍼의 심정과 같은 상황이다.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골프장이 이제는 ‘빈강통’으로 전락하고 있다. 3M골프경영연구소의 ‘한국의 골프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올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제 187개를 포함해서 총 487개다. 민간 골프장 454개와 군 골프장 33개를 합친 결과다. 이들이 운영 중인 골프장의 홀수를 계산하면 총 9626홀로 나타났다. 18홀 기준으로 계산하면 534개 골프장이 운영

프장 질서를 깨뜨린 반향하였고, 스스로가 시장의 구원자였던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이다.

◇SKY72GR는 남다른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골프장이다=미국 유명 골프채널인 ‘골프투데이’는 지난 10일 방송에서 “This is what golf in Korea looks like today(이것은 오늘날 한국 골프의 모습입니다)”라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스카이72의 코스와 붐어뱀, 휴대폰 충전기, 몽골텐트 정중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여주며 한국 골프를 설명했다. 스카이72가 대한민국 대표 골프장이라는 의미였다. 이처럼 스카이72는 국내보다 세계적으로 더 알려져 있다. CCM(소비자중심경영)인증 평가위원인 어느 위원은 “스카이72는 단순히 어느 한 기업 소유의 골프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사회적 자산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골프장이 있다는 것은 골퍼들에게, 이 사회에 축복이라는 말이다.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는 “(기존에 받아들이던) 당연함을 완벽하게 부정했다. 모든 주어, 관점을 고객으로 바꾸어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무서운 고객이 매일 몇 천 명씩 오는데 어떻게 긴장을 안 할 수 있는가”라며 “긴장의 근원을 고객을 무시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 골프장으로 자리잡은 영종도 ‘스카이72’ 그 성공사에는 우리 사회의 자산…변화의 길을 찾아보자



중인 셈이다.

◇컷 오프 되는 골프장들이 많아졌다=2006년까지 250곳가량 되던 골프장이 이처럼 10년 만에 두 배가량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난에 시달리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골프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이 60여 곳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골프장의 가치를 떨어뜨려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들의 회원권 하락으로 이어진다. 또한 경영난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도 늘고 있다. 골프장, 회원, 지자체 모두 패자가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골프장의 운명 바꿀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짜야 할 때=골프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은 너무 많다. 특히 지금 같은 경기침체, 가성비 추구,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고객의 니즈의 변화 등은 골프장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더 다급하고, 더 절박하게 골프장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 골프장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 요인에 대응하고, 조직의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조직의 군살을 제거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경영진은 더 이상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오는 고객만 받고 그들로부터 그저 주문이나 받는 오더 테이크(Order Take)형 경영을 하서는 안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시키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 그 지푸라기가 구원의 손길과 같은 것이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바로 스스로 기존 골

그는 골프장은 권위로 짝 차 있어 딱딱하고, 골프를 접대와 사교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득했던 레드오션 시장에서 골프의 본질을 ‘재미’와 ‘경기’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꾼 SKY72GR의 경영 비결이다=세상을 바꾸고 시장의 승자가 된 기업에는 남다른 스토리와 독특함이 있다. 세상에 나온 지 10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이미 세계적인 골프장 반열에 오른 스카이72를 배우고 싶어서 그동안 수많은 골프장 관계자와 기업들이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찾아 왔지만 이들이 가진 ‘숨겨진 가치(Hidden Value)’는 쉽게 가져가지 못했다. 스카이72의 리더와 리더십, 직원들이 바로 그 숨겨진 가치의 핵심이다.

국내 골프장들이 앞으로 레드오션 시장에서 컷 오프 당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6가지 핵심적 키워드가 있다.

①더 다급하고, 더 절박하게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②고객을 골프장의 주인으로 만들며 ③강력한 골프장 브랜드가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이해하며 ④세상에 기여하는 골프장이 되는 것 ⑤세상의 모든 것과 손잡고 제휴하는 컬래버레이션 ⑥세상을 바꾼 골프장과 리더의 모습을 제시할 것 등이다.

또한, 탁월한 골프장이 되려면 경영 품질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리더십, 전략, 마케팅(상품, 가격, 유통, 촉진), 정보, 인적자원(직원, 협력사, 캐디), 사회책임활동 등으로 나누어 총 20회 동안 스카이72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기동 박사는… 고객관점의 경영전략 및 마케팅 전략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 골디락스 대표이사, 하나투어 경영고문, 삼천리 경영자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경영자문, KMAC파트너·공정거래위원회 CCM평가위원, 메리츠화재 근무, 청주대 경영학 박사, 서강대 MBA, 한국소비자원·기업은행·코레일·스카이72GR·서울아산병원 등 100여 개 기업 컨설팅

좋은 피니시가 좋은 스윙을 만든다

김수현의
fun한 골프레슨

피니시 동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골퍼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니시가 좋아야 샷의 결과와 좋습니다. 스윙의 결과와 피니시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중심 잡힌 임팩트가 나와야 볼의 정확성과 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중심이 잡히려면 몸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스윙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피니시 동작에서 잘못된 동적의 사진처럼 오른쪽 어깨가 지나치게 더 높다든지, 혹은 오른쪽 어깨가 더 많이 낮아지면 중심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어 중심을 잃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임팩트를 견고하게 때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른쪽 어깨가 높아졌다는 것은 치면서 머리가 따라

나갔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어깨로 엮어 쳤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피니시에서 오른쪽 어깨가 더 높아지게 되면 헤드가 닫히면 풀 훅, 열리면 슬라이스성 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지나치게 오른쪽 어깨를 떨구고 스윙을 하면 중심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 뒤땅성 볼을 치기가 쉽고, 피니시까지 스윙이 이뤄지지 않아 스윙 스피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올바른 피니시는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일단 중심이 잘 버텨져 있어야 합니다. 양쪽 어깨 또한 사진과 같이 수평이 되어 있거나, 오른쪽 어깨가 약간 밑으로 처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피니시 동작이 안정적으려 있어야 좋은 스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피니시가 나올 경우, 처음엔 제어가 가능한 정도의 스윙 스피드만 가지고 스윙을 해 보도록



올바른 피니시 동작(왼쪽)과 잘못된 피니시 동작.

합니다. 너무 빠른 경우, 그리고 몸의 중심과 밸런스가 앞뒤로 흔들릴 경우에 피니시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중심을 잡으면서 스피드를 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먼저 밸런스를 잡는 피니시를 먼저 연습을 합니다. 그런 뒤 어깨가 한쪽으로 높아

져 있거나 낮아져 있으면 그대로 끝내지 말고 올바른 자세로 수정 후 3초간 유지하고 자세를 푸는 동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윙 중에 교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정을 하고 몸에 익히는 것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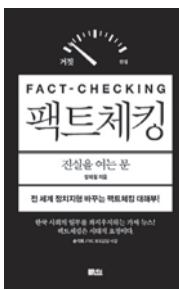
네이버 1부 골프레슨 교습가

당신이 믿고 싶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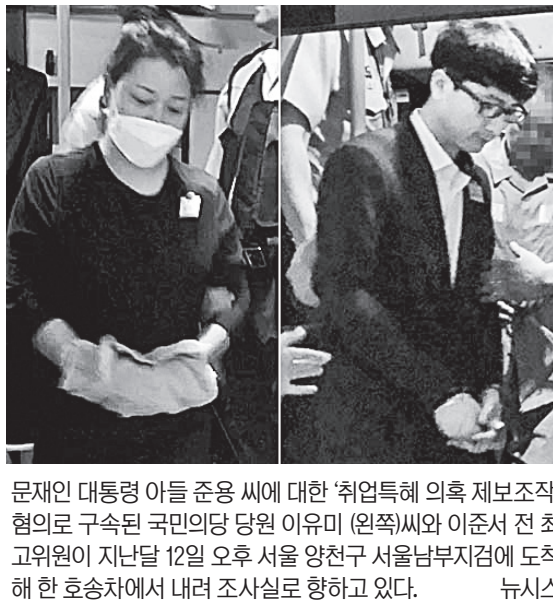
지난 대선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가짜 뉴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라
대니얼 J. 레비틴 박사 '무기화된 거짓말'
온라인 상 허위정보 대처방법 소개
현직기자 정재철 씨가 쓴 '팩트체크'
'사실 검증' 저널리즘의 필요성 역설



무기화된 거짓말
대니얼 J. 레비틴
박유진 옮김
레디셋/ 2만2000원



팩트체크: 진실은 여는 문
정재철
책담/ 1만4000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왼쪽)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날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한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스

“넘쳐 나는 가짜뉴스에 힘들었다. 가짜 파슨스 동기 인터뷰, 그런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저랑 만났던 같은 과 파슨스(동기)는 아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올해 5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통령선거(대선)가 치러졌고,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에 휘말렸고, 급기야 국민의당에선 준용 씨가 다녔던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 동기의 육성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언론과 각종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 등을 통해 이 같은 녹취록 내용은 일파만파 확산됐고, 이 사태로 당시 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하락했다.

하지만 6월 말 국민의당 측이 준용 씨의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 동기 육성 인터뷰 내용 등 일부가 당원인 이유미 씨에 의해 조작됐다고 시인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비록 문 대통령이 당선

됐지만, 결국 국민의당에서 만든 가짜뉴스 탓에 혼전을 거듭한 셈이었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최근 사회 전반을 흔드는 이슈가 됐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 후보나 상대 당 진영을 흔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신간 두 권을 소개한다.

신경 과학자이자 인지 심리학자인 대니얼 J. 레비틴 박사가 쓴 책 '무기화된 거짓말'은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수많은 정보에서 문제점을 찾는 법과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는 여러 가지 방어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뽑은

2016년 올해의 단어가 '탈진실(脫眞實)'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진실의 붕괴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내용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실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처럼 '탈진실'이 만연한 '가짜뉴스 시대'에 저자는 “당신이 믿고 싶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말한다. 최근 일어나는 가짜뉴스 현상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거짓말의 형태나 확산 경로 등이 여러 면에서 과거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꼭 언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럴듯한 사이트나 그럴듯한 정보를 만들어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네티즌들의 클릭 수를 유도하고 그것

으로 돈벌이하는 사람들마저 생겨났다. 심지어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사람들이 연구는 하지도 않은 채 거짓 결과를 발표한다는 충격적인 진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저자는 “온라인에는 진짜 정보와 허위 정보가 나란히 공존하는데, 우리는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라며 “그러려면 신중한 사고와 과학적인 분석력을 길러야 한다”고 전한다.

현직 기자인 정재철 씨가 쓴 '팩트체크'는 전세계 팩트체커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팩트체크의 기본 개념과 역사적 배경,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팩트체크가 끼친 영향과 한계에 대해 설명한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활개 친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예가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팔았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내용 등이다. 미국 대선의 승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됐지만, 그의 승리에는 이런 가짜뉴스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가짜뉴스는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쳐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거짓이 관찰수록 진실에 대한 갈구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팩트체크'가 새로운 저널리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을 정도다. 저자는 “팩트체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며 “언론계에서 말하는 '사실확인'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검증'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이재영 기자 lijy0403@

새로 나온 책



링커십
신인철 / 한스미디어
1만6500원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관리자 즉 '링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리더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면 결국 그 조직은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링커십’의 저자인 신인철 씨는 이 책을 통해 링커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링커 본인을 역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링커는 리더와 팔로어의 사이에서 우리 조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링커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링커는 리더처럼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존재나 위치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팔로어처럼 ‘리더의 반대되는 개념’ 정도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링커십을 발휘해 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신간 ‘링커십’은 풍부하고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 링커와 링커십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링커를 육성할 수 있는지, 모두가 원하는 링커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소개한다.

저자는 유사한 직위, 직급, 직책, 연령, 경력, 업무능력을 보유한 링커 99명과 인터뷰를 통해 리더십과 팔로어십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조직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열쇠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김정웅 / 새로운사람들
1만5000원

브랜딩 전문가인 저자 김정웅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는 책 ‘당신은 특별합니다’를 통해 ‘퍼스널 브랜딩’과 통렬한 자기 성찰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인간도 브랜딩이기 때문에 “인생은 곧 브랜딩”이라며 퍼스널 브랜딩의 목적은 ‘나’를 가지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나’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혹은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책에는 퍼스널 브랜딩 외에도 저자의 진솔한 체험과 통렬한 자기 성찰을 통한 인생을 대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 저자는 생활 속에서 발견한 사물에 대한 감상, 살아가며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 사회생활을 하며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준다.

저자는 이 외에도 자긍심, 경쟁, 설득, 방향성, 꾸준함, 주도, 독서 등의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데 기본이 되는 개념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 도전 가치들이 당신이라는 나무를 든든히 받쳐주는 밑거름과 뿌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전한다.

산대놀이·선유놀이, 전통 공연문화의 재창조 꿈꾸며...

故 사진실 교수 저작집 '전통연희 시리즈' 9권 발간
後學들에게 재창조의 길 열어준 연구성과 집대성

2015년 작고한 전통예술계 대표 인물인 고(故) 사진실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교수의 저작집 '전통연희 시리즈'가 출간돼 공연문화학과 공연예술계가 주목하고 있다. 아홉 권으로 구성된 '전통연희 시리즈'는 사진실 교수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저자인 사진실 교수는 전통 연희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학자이자 제자들에게는 따뜻한 스승이었고, 인문학의 창조적 사회 기여를 꿈꾼 행동가였다.

그가 씨를 뿌린 전통 연희연구 방법론은 후학들에 의해 새로운 인문학의 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실 교수가 오래된 문헌을 탐험하며 찾아낸 보물창고는 연극 '이(爾)', 영화 '왕의 남자'로 이어졌다. 그토록 복원하길 염원하던 산대(山臺)는 올해 국립국악원의 '산대희(山臺戲)·만화방장(萬化



고(故) 사진실 교수의 저작집 '전통연희 시리즈'.

方暢) 공연으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번에 출간된 전통연희 시리즈 제1권 '한국연극사 연구'와 제2권 '공연문화의 전통 악(樂)·희

(戲)·극(劇)'은 사진실 교수 생전에 간행된 것을 다시 다듬은 것이다. 각각 우리의 연극을 통시적으로 조망했으며, 한국의 연극사를 혁신적 방법론으로 분석·체계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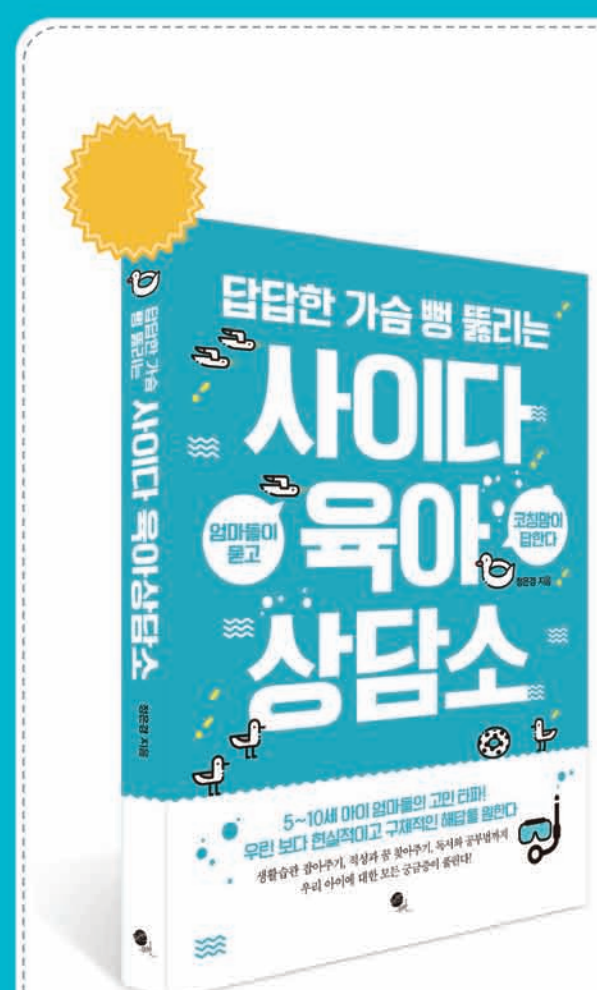
제3권 '조선시대 공연공간과 공간미학'은 전통연희가 연행되는 공간과 그런 공간을 통해 표출되는 미학의 성격을 중점적으로 해명했으며, 제4권 '전통연희의 전승과 성장'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통연희가 어떻게 전승되고 성장했는지에 중점을 뒀다. 제5권 '전통연희의 전승과 근대극'은 조선후기와 근대에 초점을 두고 전통연희가 지속하고 변용되는 측면을 고찰했으며, 제6권 '봉래산 솟았으니 해와 달이 한가롭다'-왕실의 연희축제는 왕실에서 행해진 전통연희를 대중에게 쉽게 소개했다.

이 밖에 제7권 '융합형 공연제작실습 교육'을

위한 전통연희 매뉴얼'은 예술 현장에서 전통연희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며, 제8권 '융합형 교육을 위한 공연문화유산답사 매뉴얼'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전통연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마지막 제9권 '전통연희의 재창조를 꿈꾸다'는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다. 공길, 장생, 박남, 달문, 심용, 추월, 무숙, 박춘재와 연산군, 세조 등 광대와 왕의 이야기, 궁궐공연, 산대놀이, 선유놀음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사진실 교수는 전통연희 시리즈를 통해 공연문화를 연구하는 후학들과 전통연희의 재창조를 꿈꾸는 예술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

이재영 기자 lijy0403@



답답한 가슴 뽕뽕리는 사이다 육아 상담소
정은경 지음 | 260쪽 | 14,000원

5~10세 아이 엄마들의 고민 토크! 우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원한다

생활습관 잡아주기, 적성과 꿈 찾아주기, 독서와 공부법까지 우리 아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린다!



일상 속 상상 다이빙
김민주 글*그림 | 216쪽 | 13,500원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또 얼마나 많은 '언 해피 타임들 (Unhappy Times)'을 쓰고 있는 걸까?

저마다의 '봄'을 꿈꾸며 살지만, 때론 언제일지 모르는 봄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은 강한 척, 쿨한 척,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에 지칠 때, 침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기 싫을 만큼 허영과 멀린 때 누군가로 부터 듣고 싶던 말들이 새겨진 작은 의자처럼 도심 속 오아시스 가 되어 줄 것이다.

“새도보팅 폐지 땀 감사 선임 불가”

3년 유예 종료 앞뒤... 소액주주 많은 코스닥 기업 피해
최악의 경우엔 상폐... “사실상 의결정족수 충족 어렵다”
상장사들 “3%를 폐지 등 대안 나올 때까지 연장해야”

연말 새도보팅(shadow voting) 폐지를 앞두고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폐지되면 감사 선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관련 기관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3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올 연말 새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소액 주주 비율이 높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새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새도보팅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폐지 예정이었다. 당시 일부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주주총회 무산을 우려한 상장기업들의 반발로 3년간 폐지에 유예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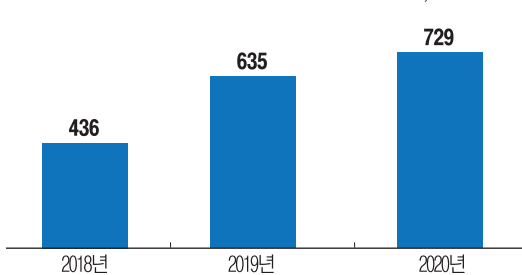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제도적 대안 없는 새도보팅 폐지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되는데, 새도보팅 폐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당할 수 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많고, 주식 보유기간이 채 3개월도 안 되는 상황이 많아서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어렵다. 이 상황에서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감사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김종선 상무는 “소액 주주들의 경우 주주총회 참석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새도보팅 폐지 대안으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했지만 참석 비율이 2%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최근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에 입법 연장 및 관련 규정 완화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추가 정책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의원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추가 유예 결정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전언이다. 김 상무는 “최근 정책 세미나를 여는 등 여야의

향후 3년간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 수
(단위: 개사) ※ 출처: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원을 막론하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장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의결권을 받으러 뛰어나야 할 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3%를 폐지 등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새도보팅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서 새도보팅을 신청한 회사는 전체 상장사의 33.3%에 달한다. 약 3분의 1 이상이 내년에 주총을 개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 유현익 정책본부장은 “현행 상법 규정은 과거 주주가 많지 않을 때 적합했던 모델”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방산비리 KAI, 분식회계 의혹에 증권가 ‘투자보류’ 의견 잇따라

주가 이틀 연속 폭락...시총 1.3조 증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의 방산 비리 수사가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증권가는 KAI에 대해 회계 부정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 판단을 유보하라는 의견을 잇따라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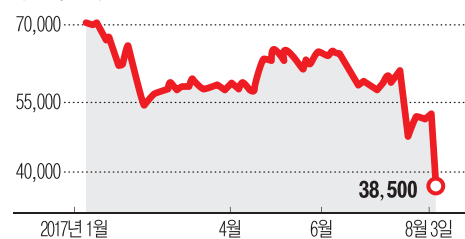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AI는 전날 주가가 16.57%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12.10% 하락 마감했다. 장중 5만81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기도 경신했다.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며 KAI의 시가총액은 지난 이틀간 1조 3540억 원(5조1174억 원→3조7528억 원)이 증발했다.

KAI에 대한 검찰의 방산 비리 수사 내용은 국산 기동헬기(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 조작과 개발비 편취 의혹 등이었다. 그러나 전날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 공군기지 건설 사업에서의 분식회계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정밀감리가 진행 중이다.

증권가는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KAI에 대해 일단 투자 유보를 권고했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회계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 주가가 하락해도 바닥을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윤관철 BNK투자증권 연구원도 “방산 비리에서 시작된 검찰조사가 회계 부정으로 확

한국항공우주주 주가 추이
(단위: 원)



대되면서 부정적 여론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서 불확실성이 보다 확대됐다는 점에서 KAI의 주가는 섹터멘트에 의해 좌우되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 비리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글로벌 동종 업체 대비 부여했던 프리미엄이 부여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지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KAI가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프로젝트와 올해 말 수주 결과를 기다리는 미국 고등 훈련기(APT) 사업에 대한 기대로 글로벌 업체 대비 프리미엄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독점 방산업체라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의 투자자의견을 각각 ‘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주가를 기존 7만8000원→4만3000원, 7만 원→4만8000원으로 하향했다. 김미경 기자 mj@

이주의 수급동향

나흘간 5592억... 외국인 ‘매도 폭탄’

지정학 리스크·세법개정안 投心 위축
개인도 711억... 기관은 5063억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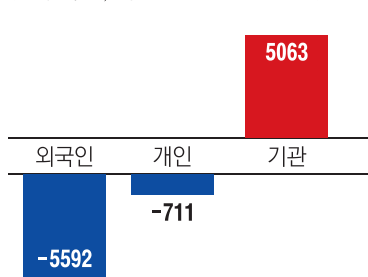
실적 기대감을 엮고 달리던 코스피지수에 급제동이 걸렸다. 외국인은 대규모 매도 폭탄을 던지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총 5592억 원 순매도했다. 지난주 1조6307억 원 순매도에 이어 이번 주 역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기관은 5063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개인은 711억 원 순매도했다.

전날 코스피지수는 40.78포인트(-1.68%) 급락한 2386.85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4039억 원어치를 팔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두드러지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외국인 투자자 등 비거주자에 대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단기간 가파르게

코스피 시장 투자자별 수급 동향
(단위:억 원, 기간: 7월 31일~8월 3일)



상승한 코스피의 가격 부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내 전쟁불사론,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의 우려가 맞물리면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IT·금융주에 손을 뻗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330억 원)였다. 우리은행(291억 원)과 기업은행(173억 원)도 집중 매수했다. 이 밖에 △삼성SDI(312억 원) △엔씨소프트(273억 원) △삼성전기(270억 원)를 집중 매수했다. △현대중

코스피 시장 외국인 상위 순매수 종목 (단위:억 원)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1	SK하이닉스	330	6	현대중공업	239
2	삼성SDI	312	7	제일기획	214
3	우리은행	291	8	기업은행	173
4	엔씨소프트	273	9	롯데케미칼	168
5	삼성전기	270	10	고려아연	160

공업(239억 원) △제일기획(214억 원) △롯데케미칼(168억 원) △고려아연(160억 원)도 바구니에 담았다. 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선주는 각각 1652억 원, 927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한국항공우주(1020억 원) △네이버(530억 원) △현대차(513억 원) △현대모비스(512억 원)도 팔렸다.

한편 기관은 △엔씨소프트(641억 원) △롯데케미칼(476억 원) △현대모비스(439억 원) △LG화학(407억 원) △현대차(356억 원) 등에 관심을 보였다.

유혜은 기자 euna@

미래에셋대우, 해외주식자산 2조 돌파

미래에셋대우의 해외 주식 자산이 2조 원을 돌파했다.

3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3월 말 해외 주식 잔고가 9307억 원에서 4개월 만에 80% 이상 증가해 1조6836억 원을 기록했다. 투자 대기자금 성격인 외화예수금도 3200억 원을 기록, 총 해외 주식 자산은 2조36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양질의 리서치 자료 제공 △글로벌 브로커리지 전문인력 육성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우선 미래에셋대우는 글로벌주식본부 내 해외주식컨설팅팀을 통해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등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신성장산업군과 유망 종목을 선별해 전 지점 자산관리(WM)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직원 교육을 통해 글로벌브로커리지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분기별로는 글

로벌주식포럼을 실시해 글로벌 투자전략, 투자 유망종목 등을 제시한다. 또 매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원들의 분석 강의와 시장 설명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 각 지점 해외주식 관련 세미나 진행 건수는 340회에 달한다.

아울러 미래에셋대우는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증시 온라인 거래를 시행, 국내 최초로 브라질 주식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래가능 시간이 국내 시장과 달라 겪게 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자 24시간 해외 주식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 외환부서를 운영하며 환전수수료를 5원까지 낮췄다.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본부장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다양한 투자처에 분산 투자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 / 마스터즈도로사이클대회

평화를 넘어 미래를 달린다

대회일정: 2017. 9.3(일) ~ 9.6(수)
대회장소: 고양시, 연천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 참가 | 국제청소년대회 ▶ 외국 15개팀 | 국내 고등부 10개팀
마스터즈대회 ▶ 마스터즈사이클투어(MCT) 등록 30개팀
- 주최 | 행정안전부,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 주관 | (사)대한자전거연맹
- 후원 | 강화군, 고양시, 연천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참가신청 및 문의: 02-420-4247 / www.tourdedmz.com

주최

주관

후원

회생절차 건설사 ‘이유있는 매각흥행’

STX건설 미처리결손금 5082억
코리아리츠, 10년간 법인세 면제
한일건설, 올 1분기 기준 6558억
SM 등 非건설 기업도 인수 의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사들의 잇따른 매각 흥행에 제무상 막대한 이월결손금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 건설사를 인수한 회사는 이월결손금 규모만큼 향후 10년간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전면 공제받거나 소득의 4% 수준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근 코리아리츠로 매각이 완료된 STX 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미처리결손금은 5082억 원이다.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한일건설의 경우 올 1분기 말 기준 미처리결손금이 6558억 원에 달한다. 미처리결손금은 당기에 발생한 순손실이지만 아직 주주총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STX건설과 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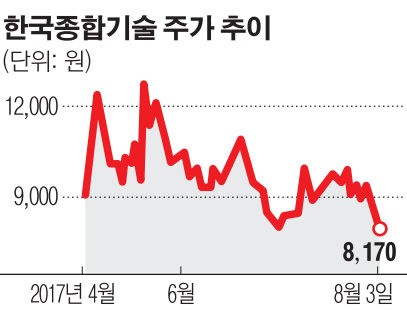
건설의 지난해 미처리결손금에는 2015년 이전부터 처리되지 않고 이월된 결손금이 누적돼 있다. 현재 미처리결손금 역시 M&A 이후 정상적인 이익이 날 때까지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월결손금을 향후 10년간 매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기업이 결손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이익에서 과거 결손금만큼을 빼고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과거 결손금을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기업도 소득의 80%까지 가능하다. 과세표준에 따라 22~27.5% 수준인 법인세 부담이 최소 4~5%대로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진다. STX건설을 인수한 시행사 코리아리츠는 앞으로 매 사업연도 영업이익에서 5000억 원이 넘는 결손금을 모두 차감할 때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M&A를 통해 이러한 절세효과를 누리려면 현행법상 건설사 매물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 2008년 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는 같은 사업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식품회사가 IT부품 제조회사를 인수할 경우 제조사의 결손금을 향후 식품부문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건설사는 업종 특성상 사업영역이 방대해 일명 ‘끼워맞추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건설 업종인 인수자도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시행사를 세워 건설사에 일감을 주고 시공은 다시 하도급으로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 부문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 손정남 현대회계법인 이사는 “법 개정 전에는 결손금액이 큰 부실기업이 오히려 인수회합자를 합병하는 형태의 ‘역합병’이 많이 일어났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통한 절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영역 경계가 흐린 건설업종 매물을 인수하는 것이 절세를 노린 M&A에서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며

“특히 연구개발세액공제 등은 제조업 등에만 적용되고 건설업의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거의 없어 이월결손금 공제 매력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날 21일 마감된 한일건설 예비입찰에는 5개 기업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수의계약과 공개매각이 접목된 ‘스토킹호스’ 방식 매각으로 진행돼 이미 수의계약자가 있는 상태였지만 공개매각에서도 큰 인기를 보인 것이다. 회생기업 인수에 적극적인 SM 그룹이나 세운건설 등 동종업계 기업은 물론이고 비건설 업종에서도 한일건설 인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STX건설이나 한일건설의 경우 회생 중인 상황으로 향후 이익 발생을 장담할 수 없어서 이월결손에 대한 법인세 공제 예상치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매각을 추진 중인 대우건설의 경우 올 1분기 재무제표상 표시된 이연법인세 자산만 8769억 원에 달한다. 미래에 법인세를 절감해 자산으로 인식될 금액 규모를 의미한다. 정다운 기자 gamja@

한국종합기술 본입찰 참여 ‘우리사주’ 메리츠證券 300억 확보… 760억 베풀

한국종합기술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인수를 위해 760억 원가량을 준비했다. 안정적인 베풀을 해온 호반건설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사주조합의 인수 성공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이번주 발표될 우선협상사에서 우월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종합기술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우리사주조합은 메리츠증권증권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로 30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하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이다. 임직원 920여 명이 최대 5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최대 760억 원을 베풀는 셈이다. 당초 우리사주조합은 임직원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자금은 재무적투자자(FI), 전략적투자자(SI) 등의 투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FI로 참여를 원하는 PEF의 요구 조건이 예상보다 높아 전액 대출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메리츠증권증권으로부터 대출하는 자금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임직원이 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금리는 2%대지만 주식담보대출 금리는 7%대다. 때문에 조합은 인수에 성공할 경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빠르게 상환할 방침이다. 이들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지분 외에는 처분하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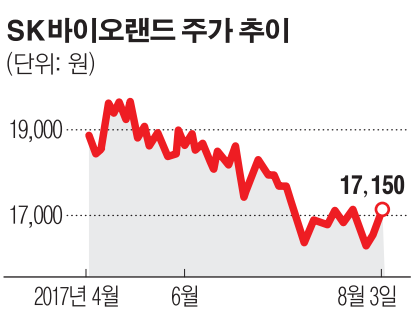


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나면 투자를 결정하는 임직원이 더 늘어나 주식담보대출로 빌리는 비중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인수 의지가 강한 만큼 확실한 자금 조달안을 마련했다”며 “본입찰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써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을 매각자 측이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통상 우리사주가 기업 인수에 성공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인수 후 경영계획, 향후 투자 방안 등이 다른 원매자보다 불확실해서다. 다만 한국종합기술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인수 자금 조달 등의 불확실성, 입찰 가격 경쟁력 등을 일부 해소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지금까지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입찰액을 제시한 바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경쟁해 볼 만하다는 평가다.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상장사 첫 종업원지주회사가 탄생한다. 정수천 기자 int1000@

SK바이오랜드, 15조 치매치료제 시장 합류

생약 등 천연물 원료로 성분 특허
‘BL153’ 임상 2a상 연내 마무리

바이오기업 SK바이오랜드가 치매치료제 ‘BL153’의 임상2a상 환자모집을 완료하는 등 노인질환 사업 진출을 키울 전망이다. 4일 SK바이오랜드는 BL153의 임상 2a상 환자모집을 끝낸 후 수개월간 환자 대상으로 투약 실험을 진행 중이며, 연내 2a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상2a상에선 주로 약의 효과와 효과를 보는 것으로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 단국대병원 등 5개 병원에 임상을 의뢰한 상태다. 2a상이 끝나면 2b상에선 용량 용법과 부작용 등을 거치게 된다. 때문에 연내 2a상이 성공하면 5부능선을 넘는 셈이다. 회사측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질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치료제가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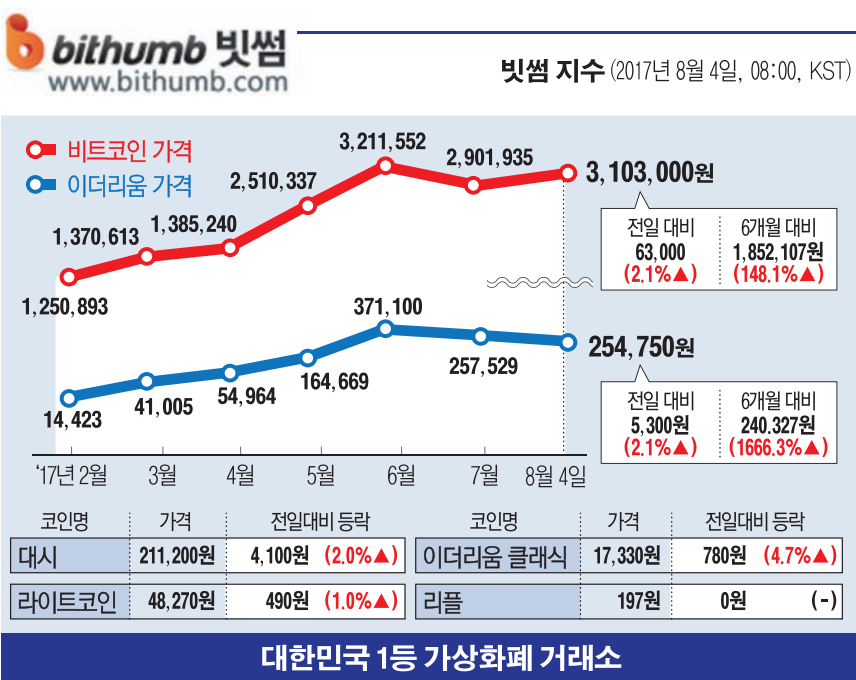
상황에서 천연물을 통해 관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치료제 시장 규모는 올해 약 15조 원에 이르는데 고령화로 인한 환자 증가로 2020년에는 23조 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SK바이오랜드는 천연물 원료에 특화된 다양한 제품을 준비 중이다. 천연물 개발 자회사인 바이오랜드 바이오텍(BIOLAND BIOTEC CO.,LTD)은 2006년 설립돼, 중국 내의 원산지로부터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생약원료, 천연물 원료로부터 화장품, 의약품, 식품 원료를 개발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인젠트, ‘카뱅’에 시스템 화면 ‘UI’ 공급

임·출금 등 직원 업무 처리용
유지보수 맡아… 매출 기대

컴텍시스템의 계열사 인젠트가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프로그램 UI(사용자환경) 솔루션 등을 공급했다. 인젠트는 카카오뱅크에 정보처리 UI 솔루션과 내부채널통합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는 관련 유지보수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젠트가 카카오뱅크에 공급한 UI 솔루션은 통합단말 및 정보처리 UI 솔루션으로 콜센터를 포함한 내부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 화면이다.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편하게 은행 전산시스템을 화면으로 구성한 것을 카카오뱅크에도 적용한 것이다. UI 솔루션은 은행으로 따지면 영업점에서 창구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인젠트의 시스템이 카카오뱅크에 계속 사용

된다. 인젠트의 UI 통합단말 솔루션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제1금융권 대부분에 공급됐다. 회사 관계자는 “UI 솔루션은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시스템을 은행 내부 직원들이 이용하기 쉽게 화면을 구성해 입금, 출금, 대출, 저금 등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번에 솔루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개념이라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며 “유지보수는 수행하며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젠트는 금융솔루션 개발·판매를 하는 컴텍시스템의 비상장 계열사다. 컴텍시스템은 2001년 3월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인젠트에 출자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올해 3월 말 기준 인젠트 지분 11.18%(7만9325주)를 보유하고 있다. 컴텍시스템은 1983년 설립, 1997년 코스피에 상장한 금융권 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 기업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점대!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 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전문 연예뉴스
비즈니스
2013년 10월 15일 오픈

두근거림은
I am your Energy야

사람, 일, 사랑...

새로운 것을 만난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

그래도 좋은 건,

낮설고 두려워도 참 좋은 건,

두근두근 여전히 가슴이 뛰는 것.

그게 바로, 산다는 재미.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